6.15주간

주체90(2001)년

6.15Weekly

제13호 (9월 14~20일)



노작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축하문

남북장관급회담
미국테러참사와 반미반전

청년학생들과 인민들 ≪한나라당≫ 해체를 요구
30개 영화단체 ≪조선일보 반대 영화인 선언≫

대전충남학생운동토론회 ≪국가보안법 철폐공동성명≫
민주노동당과 학생운동 진로
한총련 합법화 투쟁의 닻이 올랐다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제13호 (9.14~20)

민족의 태양이시며 주체조선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에 즈음하여 주체사회주의 조선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다함 없는 경모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20세기 세계정치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공화국의 창건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정권건설노선과 탁월한 영도의 위대한 승리였으며 자주적인 새 조선의 장엄한 탄생이였습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공화국이 걸어 온 53년의 행로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찬란히 수놓아져 있습니다.

일찍이 준엄한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주체적정권건설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광복된 조국땅위에 민중중심의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여 자주독립국가를 열망해 온 민족의 세기적숙망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습니다.

반만년 민족사에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민중의 나라를 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쳐물리치시고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잿가루만 흩날리던 조국북반부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 높은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는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였습니다.

건국의 어버이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공화국은 근로민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활동의 조직자, 이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 참다운 사회주의정권의 위력과 우월성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쳐 마련하신 주체의 국가건설노선과 정책, 강위력한 정치, 군사, 경제적토대와 불패의 일심단결은 공화국이 영원히 승승장구할수 있는 위대한 유산으로 되였으며 수령님의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휘황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공화국의 자랑찬 행로에는 일찍부터 경애하는 수령님의 건국위업을 높이 받드시여 주체조선을 필승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노숙하고 세련된 영도가 찬란히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에 있어 본적 없는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경애하는 수령님을 변함없이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태양절과 주체연호를 제정하심으로써 **김일성**조선의 역사가 억만년 길이 흐르게 하시였습니다.

천재적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이론을 더욱 풍부화하시고 구현하시여 주체사회주의 조선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 주시였으며 공화국정권을 주체위업수행의 위력한 정치적무기로 강화발전시키시고 혁명의 주체를 불패의 보루로 다지시여 강성대국건설의 역사적전환을 열어 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특히 독창적인 선군정치, 선군혁명영도로 제국주의반동들의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분쇄하시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그 존엄을 만방에 떨치시였습니다.

걸출한 영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의 거룩한 혁명실록을 수놓아 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아래 주체조선은 오늘 세계의 그 어떤 동란속에서도 끄떡없는 필승불패의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으로 그 위용을 온 세상에 높이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세계를 끝없이 격동시킨 위대한 장군님의 역사적인 러시아연방방문은 공화국과 세계정치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사변이였습니다.

21세기 태양의 찬연한 빛을 뿌리시며 20여일간에 걸쳐 5만여리의 대장정을 전설적영웅서사시로 수놓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조국통일과 민족의 강성부흥의 앞길에 새로운 국제적환경을 마련하시고 인류자주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며 우리 민족의 지위를 반만년의 민족사상 최상의 경지에 올려 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에 끝없이 매혹된 만민의 다함 없는 경모와 충성의 송가가 우주에 차넘치는 가운데 공화국창건절을 앞두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장쩌민동지의 주체조선방문은 조중친선의 영원한 강화발전과 온 세계사회주의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의 표시로 됩니다.

우리 민중은 특기할 사변들을 통하여 영도자의 위대성에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이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절감하면서 온 세계가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을 민족의 영수로 모신 한없는 민족적자긍심에 넘쳐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숭배열기를 더욱 뜨겁게 분출시키고 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필생의 사명으로 새기시고 6.15공동선언을 탄생시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8.15광복 56돌을 맞으면서 통일의 성도 평양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건립하도록 하시고 민족통일대축전을 마련하시여 우리 겨레의 견결한 통일의지를 온 세계에 힘있게 과시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참말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십니다.

우리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중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조국통일은 확정적이며 우리 민족은 머지않아 장군님을 높이 모신 통일강성부흥국에서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며 21세기는 **김정일**세기로 빛날것이라는 굳은 확신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로지 경애하는 장군님과 운명을 같이 할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6.15공동선언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기필코 앞당겨 오고야 말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은 남녘민중의 한결같은 소원이며 조국통일과 부흥강국건설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각층 민중의 일치한 염원을 담아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원한 청춘으로 젊어 계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0 (2001)년 9월 9일
서 울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축하문

주체77(1988)년 10월 18일

나는 세계평화리사회의 주최로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열린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를 열렬히 축하하며 회의에 참가한 여러 나라 대표들과 모든 외국손님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당신들의 이번 평양회합은 현 시기 국제정치분야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절박한 문제를 토의하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물론, 아세아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인류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는 길에서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애호력량의 완강한 투쟁과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오래동안 대결과 랭전의 분위기가 지배하던 국제관계에서는 점차 완화의 국면이 열리고 있으며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인류공동의 번영을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의연히 힘의 정책에 매달려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경쟁을 다그치고 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고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을 억압, 착취하기 위한 침략과 략탈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아세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확립하려는 야망밑에 이 지역에 방대한 핵무력을 전개하고 인민들을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아세아, 태평양지역에는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이 침해 당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정세를 개선하는것은 오늘 전반적국제정세의 완화과정을 촉진하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절박한 문제이며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것은 아세아, 태평양지역정세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고리로 됩니다.

지금 미국은 저들의 침략적인 아세아, 태평양전략에 따라 남조선을 영원히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 쥐기 위한≪두개 조선≫조작책동을 강화하는 한편 남조선에 핵무기와 여러가지 현대적인 전쟁수단들을 대대적으로 끌어 들이고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을 빈번히 벌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올림픽안전보장≫이라는 구실밑에 우리 나라 주변바다에 집결시켰던 항공모함타격전단들을 올림픽경기가 끝난 지금까지도 끌어 내가지 않고 도발적인 군사적소동을 계속 벌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여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방대한 핵무기가 남조선에 전개되여 있는 조건에서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 나면 그것은 쉽사리 조선반도의 범위를 벗어나 아세아, 태평양지역은 물론, 세계적범위로 확대될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세계 수억만 인민들이 핵참화를 면할수 없게 될것입니다.

조선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여야 하며 조선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 세계평화위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방도로서 중립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제안과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제안, 다국적군축회담을 가질데 대한 제안, 북남국회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제안을 비롯하여 수많은 평화제안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침략책동과 분렬주의적립장으로 하여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광범한 인민들은 미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이 계속되는 한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적변혁에 대한 념원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자각하고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조선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두어야 할 어떠한 리유와 구실도 없으며 더우기 비핵국가인 우리와 대치하여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 들이고 그곳을 핵기지로 만들 아무런 명분도 없습니다.

남조선에 배비한 핵무기들이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기 위한것이라면 쏘미사이에 일부 핵무기를 철폐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은 마땅히 남조선에서도 핵무기들을 철수하여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는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의 광범한 평화애호력량이 공동으로 투쟁할 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선의 평화와 평화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 주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정부와 평화애호인민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이번 평양국제회의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국제적여론을 더욱 힘 있게 불러 일으키며 조선반도와 전반적아세아, 태평양지역의 정세를 개선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위업수행에서 세계평화애호력량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인류를 핵참화로부터 구원하고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력사발전에 역행하는 현대제국주의는 평화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원쑤입니다.

현 시대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모든 평화애호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전쟁세력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 나설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광범한 평화애호력량이 강력한 국제적뉴대를 이루고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이르는곳 마다에서 반전, 반핵, 평화옹호투쟁을 힘 있게 벌려 나간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수 있을것입니다.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축을 실현하며 다른 나라에 있는 침략군대와 침략적군사기지들을 철수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는것은 현 시기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핵전쟁을 방지하며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평화애호나라들의 건설적인 발기와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모든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냅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아세아, 태평양지역에서 침략군대와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며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핵무기가 없고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가 인류의 평화위업에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기대와 념원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훌륭한 결실을 가져 오기를 바랍니다.

수난당한 대지

세기와 더불어 제2권
5장 무장한 인민



...

큰 기대를 걸고 찾아온 간도의 파괴상이 이처럼 예상외로 참혹한데다가 인민이 또한 혁명가들을 불신하고 멀리하는 사태까지 목격하게 되니 괴로와서 견딜수 없었다.

인민을 위해 싸우는 투사들이 자기를 낳아준 인민에게서 버림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단 하루라도 인민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 혁명가의 생명은 산 목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대중이 계렬을 가리지 않고 혁명가 일반을 랭대할 때 우리가 그토록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은 폭동을 계기로 하여 공산주의자들의권위가 훼손된 데 대한 안타까움, 군중이 자기 지도자들을 믿지 않고 조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데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으며 조중인민들 사이에 불신과 오해의 벽이 생긴데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이런 것들이 당시로서는 가장 큰 고민거리었다.

하지만 우리는 고민하고 괴로와하고 모대기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혁명가는 투쟁항로에 난관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혁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혁명가는 이런때일수록 의지를 가다듬고 신심에 넘쳐 완강하게 시련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1931년에도 간도일대에서 5.30폭동의 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작업을 근기있게 해나갔다. 카륜회의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첫째가는 장애가 바로 이 폭동의 후유증이었다. 이 장애를 시급히 제거하고 혁명대오를 재정비하지 않는다면 위기에 처한 혁명을 건질 수도 없었고 심화 발전시킬수도 없었다.

오가자회의를 끝낸후 동만으로 나가면서 나는 내자신과 동지들앞에 두가지 과제를 내세웠다.

하나의 과제는 5.30폭동의 후과를 총화하는 것이었다. 폭동을 설계하고 지휘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폭동을 여러가지 각도에서 과학적으로 정확히 분석 총화할 필요를 느끼었다.

폭동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지만 동만에는 아직도 광신적인 테로주의자들과 리립삼로선의 신봉자들이 남아 무모한 폭력투쟁에로 대중을 부추기고 있었다.

5.30폭동을 총화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몽상에서 깨여날 수 있었다.

우리는 5.30폭동총화를 통하여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출세주의와 공명주의, 소부르죠아적 영웅주의에 경종을 울리기로 결심하였다.

폭동의 총화는 또한 만주지방의 혁명가들에게 과학적인 전략전술과 대중령도방법을 체득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력사적인 전환점으로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다른 하나의 과제는 광범한 군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

세울 수 있는 올바른 조직로선을 제기하고 그 로선으로 새세대 공산주의자들을 무장시키는 것이였다.

간도지방의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파괴된 조직들을 복구정비하고 그것을 확대강화해 나가는 데서 지침으로 삼아야할 똑똑한 조직로선이 없었다.

동만지방에서 활동하던 종파사대주의자들은 대중을 조직화하는 사업에서도 혹심한 좌경적 오유를 범하고 있었다. 그들은 ≪계급혁명론≫을 부르짖으면서 빈고농들과 로동자들만을 조직에 받아들였다. 그밖의 계층에 대해서는 다 혁명과는 인연이 없는 대상으로 보았다 그래서 조직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공산주의란 바로 저런 물건짝이구나, 쌀에 뉘만큼만 홑잠뱅이들만 모여서 쑥덕거리고 나머지는 따돌리는 것이 공산주의로구나 하는 말까지 돌리며 분개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폐쇄적 경향을 타파하고 각계각층의 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 세우자면 고적의 명제나 다른 나라의 경험에만 매달리려는 사대주의, 교조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고 그 모든 애국력량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포섭하고 수용할 수 있는 올바른 조직로선을 찾아내고 그것을 한시바삐 관철해야 하였다.

나는 이러한 과제를 간도로정의 첫단계 사업목표로 정하고 동만으로 가는 걸음을 다그쳤다. 그런데 천만뜻밖에도 고유수에서 대중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고 류봉화, 최득영과 함께장춘쪽으로 나가다가 밀정의 고발로 반동군벌당국에 체포되었다. 그 당시 군벌당국은 우리의 활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도 일본경찰에 짝지지 않는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무장투쟁준비를 하기 위하여 동만으로 나간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

고유수가 중부 만주지방에서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주요한 활동기지라는 것을 간파한 군벌당국은 이통현 현공서를 발동시켜 이 마을에 독찰원을 파견하고 우리의 일거일동을 검질기게 감시하였다.

고유수에는 현공서에서 파견된 독찰원과 련계를 가지고 우리의 활동을 은밀히 내탐하던 리출류라는 중국인지주가 있었다.

우리가 고유수를 떠나 장춘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독찰원들에게 밀고한 자가 바로 이 리가 였다. 우리는 다난툰이라는 곳에서 독찰원의 련락을 받고 긴급 출동한 보위 단원들에게 체포되어 현공서 감방에서 며칠동안 심문을 받다가 장춘으로 호송되어 거기서 20일가량 감옥생활을 하였다. 내 생애에서의 세번째 감옥살이었다.

그때 장춘에는 길림육문중학교의 리광한 교장선생과 하선생이 와 있었다 그들은 내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벌당국에 찾아가 ≪김성주는 길림감옥에서 무죄로 석방된 사람인데 왜 또 잡아가두는가? 김성주는 우리가 보증한다≫고 하면서 강력한 항의를 들이댔다. 그들의 도움으로나는 다행히 감옥에서 풀려나올수 있었다.

두 은사가 다 공산주의를 리해하는 련공주의자들이였기 때문에 어려운 대목에서 주저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지난날과 다름없이 나를 진심으로 동정하고 보호해주며 우리의 위업을 변함없이 리해해주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평생을 두고 지울 수 없는 크나큰 감명을 받았다.

동만에 나와서 우리가 벌려놓은 첫 사업은 조선혁명군 대원들과 혁명조직핵심 성원들을 위한 돈화 강습이었다.

이 강습에서는 무장투쟁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과업과 그 실천방도, 기층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과 분산된 혁명군중을 찍적으로 결속하는 문제들을 취급하였다. 이해12월에 열린 겨울명원구회의의 예비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강습이었다.

이 강습이 있은 다음에는 안도, 연길, 화룡, 왕청, 종성, 온성 일대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였다.

산도와 두만강연안 륙읍 일대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한데 기초하여 우리는 1931년 5월 중순 옹성라자에 있는 리청산의 집에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를 열었다. 력사에서는 이 회의를 ≪봄명월구회의≫라고도 한다.

옹성라자란 옹기소리나는 바위라는 뜻이다. 일본이 만주를 강점하기전까지는 명월구를 옹성라자라고도 불렀다. 일본사람들이 만주를 먹은 다음 철도역을 내오면서 옹성라자를 명월구라고 표기하였는데 그것이 그대로 고착되어 후세사람들도 옹성라자를 명월구라고 부르게 되었다.

지금은 명월구가 안도현 소재지로 되었지만 우리가 회의를 하던 당시까지만 해도 그 고장은 연길현에 속해있었다.

≪봄 명월구회의≫는 당, 공청, 간부들과 조선혁명군 성원들, 지하공작원들이 수십명 참가하였다. 간도지방의 새 세대공산주의자들중에서 백창헌을 비롯하여 한다하는 혁명가들은 이 회의에 다 참가했다고 생각된다.

≪좌경모험주의로선을 배격하고 혁명적 조직로선을 관철하자≫는 이 회의에서 내가 한 연설을 정리한 것이다. 이 연설에서 내가 동만으로 나오면서 세워놓았던 두가지 과제가 다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 계획했던대로 우리는 이 회의에서 5.30폭동의 본질을 심각하게 분석총화하였으며 기본군중을 튼튼히 결속하고 그 주위에 각계각층 반일역량을 굳게 단결시켜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 력량으로 단합시킬데 대한 혁명적 조직로선을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이런 조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과업으로 지도핵심을 튼튼히 구리고 그들의 자립적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파괴된 대중단체들을 복구정비하고 거기에 각계각층의 군중을 받아들일데 대한 문제, 실천투쟁속에서 대중을 단련시킬데 대한 문제, 조중인민들 사이의 공동투쟁과 친선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론의되고 작은 규모의 투쟁으로부터 큰 규모의 투쟁에로, 경제투쟁으로부터 점차 정치투쟁에로 발전시켜나가며 합법적 투쟁과 비합법적 투쟁을 능숙하게 련결시켜 나갈데 대한 전술적 원칙들을 규정하면서 좌경모험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극복할데 대한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1931년 5월의 ≪봄명월구 회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대중전취를 위한 회합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대중을 전취하는데서 제일 큰 장애물이 바로 좌경모험주의로선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용단을 내려 그 로선을 때리었다.

우리가 좌경을 치고 광폭적인 조직로선을 내놓자 회의참가자들은 그것을 전폭적으로 환영하였다.

그 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설하였는데 연설들이 다 혁명적이었다. 연설자들은 한결같이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는 것은 시간문제인만큼 준비를 잘했다가 때가 되면 결사전을 벌이자고 부르짖었다. 로숙한 혁명가들이 많이 모인 회합이니 들을 소리도 많고 참고할 것도 많았다.

나는 이 회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회의가 끝난 다음 간도 전지역과 국내로 공작원들이 련이어 떠나갔다.

나는 명월구에서 얼마동안 이 일대의 당조직과 대중단체들에 대한 사업을 지도하다가 안도로 향하였다. 안도를 활동거점으로 삼고 당분간 간도와 국내의 혁명사업을 추켜세우자는 것이었다.

안도는 철도와 대도로, 도시들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지대여서 일제의 영향이 덜 미치고 주변이 온통 험한 산악과 밀림으로 에워싸여 있어 연길, 화룡, 훈춘지구와 무송, 돈화, 화전 지구는 물론 륙읍일대를 비롯한 국내의 조직들과도 련계를 가지기 유리하였고 유격대를 조직하고 훈련시키며 당조직 건설사업을 추진시켜나가는데서도 매우 편리한 고장이었다. 주민구성도 대단히 좋았다.

더욱이 조종의 산 백두산이 가까이에 있으므로 조국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우리로서는 그 숭엄하고도 장중한 모습에서 크나큰 정신적 위안과 고무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화창하게 개인 날이면 멀리 서남쪽하늘가에 백두령봉의 은회색 파도가 바라보이었는데 그 은은한 원경이 시야에 안겨올 때면 무장을 들고 조국을 한시바삐 찾고싶은 충동으로 가슴이 세차게 고동치군 하였다. 비록 조국을 떠나 이역에서 무장투쟁을 시작하지만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항일의 총성을 울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공통된 심정이었다.

…

온 겨레가 안겨살 품

김영숙 / 구국전선 9월 1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배달신보≫ 발행인이며 국제태권도 련맹 총재인 최홍희선생을 만나주시었다.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영도력, 한없이 고매한 덕망을 모두 체현하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덕망은 민족적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제도의 차이를 불문하고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분께서는 지난날 반공의 일선에서 민족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도 민족적 양심을 지니고 통일의 길에 나서겠다고 하면 과거를 불문하고 따뜻이 한품에 안아 보살피시고 이끌어 주신다.

지난날 반공친미의 어지러운 과거사로 하여 번민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오던 최덕신선생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배려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군님께서는 해외에 망명해 살던 선생이 방북했을 때에 그를 따뜻이 보살펴 주시었을 뿐아니라 이북에 영주할 의사를 표명했을 때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가 공화국의 품에 영원히 안겨 살게 되었을 때에는 고급주택과 고급승용차까지 배려해 주시고 해당기관에서 그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도록 은혜로운 조치를 취해 주시었다.

그분께서는 집들이를 하던 그날이 최덕신선생의 생일날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훌륭한 생일상을 차려주게 하시고 여러 간부들을 보내시어 축하해 주도록 하시었다.

그리고 그에게 천도교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의 중책까지 맡겨주시었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장군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그의 집까지 찾아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시었다.

최덕신선생이 병환 속에 있을 때에는 현대의학의 성과를 다 동원해서라도 그를 꼭 살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치료대책까지 세워주시었고 외국에 가서 치료할 때에는 특별비행기로 고추장, 콩나물, 양념들과 과일들을 비롯한 갖가지 식품들까지 보내주시기도 하시었다.

장군님께서는 불치의 병으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그리도 애석해하시며 최덕신선생의 영구를 애국열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시고 가족들을 따뜻이 돌봐주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최덕신선생 뿐아니라 과거 이남에서 군단장을 하며 반공일선에 섰던 국제태권도연맹 최홍희총재, 김성락목사, 정주영 전 현대그룹명예회장 등 각계층 인사들을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따뜻이 품에 안아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장군님께서는 특히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문익환목사와 박용길여사 등 이남의 애국인사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그리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이한열, 박승희, 박종철, 박관현, 강경대 등 애국학생들을 이북의 대학들에 명예학생으로 등록하고 8.15를 계기로 방북했던 이한열, 박승희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식들의 졸업증까지 수여해 주도록 하시었다.

하기에 오늘 우리 이남민중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우러러 경모하면서 그분의 치하에서 살게 될 통일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몸과 마음 다 바쳐가고 있는 것이다.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조평통대변인 제5차 북남상급회담이 개최되는것과 관련하여 담화 발표

북남상급회담 북측대표단 서울 도착성명

제5차 북남상급회담이 열렸다

김대중대통령이 제5차 북남상급회담 북측대표단을 만났다

제5차 북남상급회담 공동보도문

6개월만에 재개된 북남상급회담 북남공동선언리행에 활력을 불어 넣자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을 적극 환영한다

조평통대변인 제5차 북남상급회담이 개최되는것과 관련하여 담화 발표

(평양 9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제5차 북남상급회담이 개최되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13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내외의 관심속에 오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제5차 북남상급회담이 개최되게 된다.

지금 온 겨레와 내외여론은 북과 남사이에 당국대화가 재개되게 된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있으며 제5차 상급회담에서 좋은 합의들이 이룩되여 화해와 단합,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고 있다.

지난 3월에 중단되였던 북남상급회담이 6개월만에 다시 열리게 된것은 전적으로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려는 우리의 독자적이고 주동적인 조치의 결과이다.

여기에는 우리의 확고한 자주통일의지와 인내성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되여 있다.

또한 얼마전에 평양에서 있은 8.15민족통일대축전에서 확인된 온 민족의 한결 같은 지향과 요구가 담겨 져 있다.

지난 6개월동안의 총화는 우리의 민족문제에 외세가 간섭하고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아무리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도 하루 아침에 동결되고 악화되게 된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민족분렬의 오랜 력사가 보여 주는 교훈이고 총화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첫조항에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데 대한 문제가 뚜렷이 명기되여 있다.

민족자주는 북남공동선언의 핵이며 기본진수이다.

이것을 떠나서는 북남관계의 전진도, 나라의 통일도 생각할수 없다.

앞으로 북남상급회담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북남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남측이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얼마나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남측은 지난 6개월간의 총화를 통하여 옳바른 교훈을 찾아야 한다.

외세는 남조선의 반통일세력들과 결탁하여 북남관계발전과 우리 나라의 통일에 장애를 조성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력사의 흐름을 가로 막아 나서는 반통일분자들은 무사할수 없다.

우리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해 나갈것이다.

북남상급회담 북측대표단 서울 도착성명



서울 시민들과 남녘 동포 여러분!

제5차 북남상급회담을 위하여 서울에 온 북측 대표단은 우리 일행을 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맞이하고 열렬히 환영해 주는 서울 시민들과 남녘의 각계동포들, 남측 당국관계자들에게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북녘인민들이 남녘의 동포형제자매들에게 보내는 뜨거운 동포애적인사를 전합니다.

이번에 제 5 차 북남상급회담이 열리게 된것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오늘의 복잡다단한 내외정세는 우리 민족에게 자주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6.15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철저히 구현해 나갈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15와 8.15를 계기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이 금강산과 평양에서 련이어 펼친 거족적인 통일행사들은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애국적장거였습니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합을 확고히 담보해 주는 귀중한 민족적 재보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떠나서는 민족의 존엄도 북남관계의 개선도, 나라의 통일도 생각할수 없습니다.

온 민족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마련된 이번 회담은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여 자주통일의 길을 넓혀 나가는데서 전환적인 계기로 될것입니다.

우리 북측 대표단은 금번 회담에서 7 천만 온 겨레를 기쁘게 하는 훌륭한 결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의와 노력을 다할것을 확언하면서 남측도 적극 협력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제5차 북남상급회담 북측대표단
2001년 9월 15일
서울

제5차 북남상급회담이 열렸다



(서울 9월 16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리행에 대한 온 겨레의 기대와 관심이 날로 높아 가고 있는 가운데 제5차 북남상급회담이 16일 서울에서 열렸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책임참사 김령성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성원들과 수원들이 참가하였다.

남측에서는 통일부 장관 홍순영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성원들, 수원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우리측 단장이 기본발언을 하였다.

그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해 나가는데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제5차 북남상급회담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북남상급회담이 지난해 12월 제4차 회담이후 다시 열려 쌍방이 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실천적대책을 세워 나갈수 있게 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북남수뇌분들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결과로 마련된 6.15북남공동선언을 새 세기 우리 민족이 나아 갈 출로와 조국통일의 지름길을 밝힌 력사적문건이라고 강조하고 온 민족의 적극적인 지지찬동속에 그 리행을 위한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여 온데 언급하였다.

우리측은 북남공동선언을 민족의 념원과 지향이 집대성된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의 리정표로 인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사이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키며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해 모든것을 다하였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우리측이 첫 북남상급회담때부터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는 원칙에서 회담의정도 상정시키고 서로의 의견도 나누었으며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 나 대화의 방식도 새롭게 하고 신의와 협력의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왔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측이 지난 4차례의 상급회담들에서 북남사이의 폭 넓은 접촉과 래왕,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건설적이며 실천적인 제안들을 련이어 내놓고 쌍방의 합의를 위하여 성의를 다하였으며 8.15광복절과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돐에 즈음한 행사를 비롯하여 여러차례 걸쳐 북과 남, 해외의 3자가 참가하는 전례 없는 큰 규모의 통일행사들을 련이어 마련하고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측은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부합되게 남측이 내놓은 제안들을 민족공동의 리익의 견지에서 좋게 대하고 협의에 응하였으며 지난 3월 당국회담이 중단된 이후에도 애국애족의 립장에서 민간급의 래왕과 접촉, 협력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왔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6.15공동선언리행을 위한 북남상급회담이 마련된 이후 민족자주의 기운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 지고 쌍방당국사이의 관계가 대결로부터 화해와 협력으로 바뀌여 가고 있으며 북과 남사이에 각계각층의 련대련합이 실현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에 리롭게 적극 추진된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외세와 보수세력들의 책동으로 북남당국대화가 중단되는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빚어 진데 대하여 상기시키고 교훈은 북남관계, 나라의 통일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통일세력들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광범한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온 겨레는 이번 회담이 북남공동선언리행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일시 비정상적이였던 북남관계를 풀어 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것은 북남공동선언의 핵이고 절대로 양보할수 없는 민족의 최고리익이며 바로 여기에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이 있고 공동선언리행의 앞길에 가로 놓인 난관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열쇠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쌍방이 상급회담초기에 민족앞에 실질적인 결실을 내놓는 회담으로 되게 할데 대하여 확약한대로 제기된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신의주-서울사이의 철도와 개성-문산사이의 도로련결문제, 개성공업지구창설문제, 림진강수해방지문제, 전력제공문제, 우리의 동해어장리용문제, 태권도시범단교환문제, 남조선에 남아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송환하는 문제와 흩어 진 가족, 친척문제를 겨레의 념원과 실정에 맞게 풀어 나갈데 대한 문제, 북남 로씨야 철도련결과 가스관통과문제, 짐배들의 상대측 령해통과문제, 금강산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한 대책적문제 등 이번 회담에서 토의할 우리측의 제안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제5차 북남상급회담의 결과는 앞으로 북남관계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쌍방대표들이 이번 회담의 중요성과 민족앞에 지니고 있는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회담에서 훌륭한 결실을 가져 오기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담에서는 남측수석대표가 기본발언을 하였다.

회담은 계속된다.

김대중대통령이 제5차 북남상급회담 북측대표단을 만났다



(서울 9월 17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

김대중대통령은 17일 제5차 북남상급회담에 참가한 우리측 대표단을 만났다.

석상에서 대통령은 먼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안부를 물은 다음 국방위원장께 자신의 인사를 전해 드릴것을 대표단단장에게 부탁하였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것을 바란다고 하면서 6.15공동선언은 반드시 실현되여야 하며 남과 북이 공동선언을 중시하고 그 리행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대통령은 세계정세가 복잡할수록 남과 북이 화해와 단합, 협력을 강화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제5차 북남상급회담 공동보도문



(서울 9월 18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북남상급회담이 18일에 끝났다.

회담에서 쌍방은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지난 기간의 사업정형을 총화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단합과 통일의 견지에서 상정된 제안들에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이번 회담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확증하였으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우리 민족끼리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해 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마련하고 겨레에게 희망과 신심을 안겨 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회담에서는 제5차 북남상급회담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였다.

공동보도문은 다음과 같다.

제5차 북남상급회담이 주체90(2001)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해 나가려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고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북과 남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을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민간급에서의 접촉과 래왕, 협력사업을 호상 리해와 존중의 바탕우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

2. 북과 남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흩어 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인도적조치를 취하는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제4차 흩어 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로 교환하기로 한다.

3. 북과 남은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경제협력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다.

북과 남은 신의주－서울사이의 철도와 개성－문산사이의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성공업지구에 련결시키기 위하여 쌍방사이에 군사적 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발효되는데 따라 련결공사에 곧 착수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통하기로 한다.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가지고 공업지구의 규모와 구체적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공사에 착수하기로 한다.

북과 남은 금강산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10월 4일 당국간회담을 열고 륙로관광을 비롯한 금강산관광활성화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북과 남은 북과 남, 로씨야사이의 철도련결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가스관의 련결사업도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북과 남은 평화적인 민간선박들의 호상령해통과허용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해운관계자들사이의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가지기로 한다.

북과 남은 림진강수해방지대책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협의한 바탕우에서 쌍방 군사당국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 지는대로 11월중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한다.

북과 남은 이미 서명교환한 북남경제협력의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보호, 2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가지 합의서들을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발효시키기로 한다.

북과 남은 북측의 동해어장의 일부를 공동으로 리용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 실무자들사이의 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가지기로 한다.

북과 남은 이상의 경제실무적문제들의 구체적인 리행대책들을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해당 부문 접촉들에서 협의해 나가며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하기로 한다.

4. 북과 남은 태권도시범단을 교환하기로 하고 10월에 북측 시범단을, 11월에 남측 시범단을 각기 상대측 지역에 파견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문제들을 관계자들사이에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5. 북과 남은 제6차 북남상급회담을 주체 90(2001)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하기로 한다.

2001년 9월 18일
서울

6개월만에 재개된 북남상급회담
북남공동선언리행에 활력을 불어 넣자

조선신보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리행에 대한 온 겨레의 기대와 관심이 날로 높아 가고 있는 가운데 제5차 북남상급회담이 15일부터 서울에서 열렸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공화국내각 책임참사 김령성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성원들과 수원들이 참가하였다.

남측에서는 통일부 장관 홍순영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 성원들, 수원들이 참가하였다.

16일 회담에서는 우리측 단장이 기본발언을 하였다.

그는 기본발언에서 지난 3월에 중단된 이후 6개월만에 재개된 북남상급회담을 《일시 비정상적이였던 북남관계를 풀어 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 나갈데 대한 북측의 의지를 밝혔다.

통일에 리롭게 추진된 각계각층의 련대련합

그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해 나가는데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제5차 북남상급회담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북남상급회담이 지난해 12월 제4차 회담이후 다시 열려 쌍방이 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실천적대책을 세워 나갈수 있게 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북남수뇌분들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결과로 마련된 6.15북남공동선언을 새 세기 우리 민족이 나아갈 출로와 조국통일의 지름길을 밝힌 력사적문건이라고 강조하고 온 민족의 적극적인 지지찬동속에 그 리행을 위한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여 온데 언급하였다.

우리측은 북남공동선언을 민족의 념원과 지향이 집대성된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의 리정표로 인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사이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키며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해 모든것을 다하였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우리측이 첫 북남상급회담때부터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는 원칙에서 회담의정도 상정시키고 서로의 의견도 나누었으며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 나대화의 방식도 새롭게 하고 신의와 협력의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왔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측이 지난 4차례의 상급회담들에서 북남사이의 폭 넓은 접촉과 래왕,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건설적이며 실천적인 제안들을 련이어 내놓고 쌍방의 합의를 위하여 성의를 다하였으며 8.15광복절과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돐에 즈음한 행사를 비롯하여 여러차례 걸쳐 북과 남, 해외의 3자가 참가하는 전례 없는 큰 규모의 통일행사들을 련이어 마련하고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측은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부합되게 남측이 내놓은 제안들을 민족공동의 리익의 견지에서 좋게 대하고 협의에 응하였으며 지난 3월 당국회담이 중단된 이후에도 애국애족의 립장에서 민간급의 래왕과 접촉, 협력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왔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6.15공동선언리행을 위한 북남상급회담이 마련된 이후 민족자주의 기운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 지고 쌍방당국사이의 관계가 대결로부터 화해와 협력으로 바뀌여 가고 있으며 북과 남사이에 각계각층의 련대련합이 실현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에 리롭게 적극 추진된데 대하여 말하였다.

선언을 지지하는 대중의 힘에 의거해야



그는 외세와 보수세력들의 책동으로 북남당국대화가 중단되는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빚어 진데 대하여 상기시키고 교훈은 북남관계, 나라의 통일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통일세력들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광범한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온 겨레는 이번 회담이 북남공동선언리행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일시 비정상적이였던 북남관계를 풀어 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것은 북남공동선언의 핵이고 절대로 양보할수 없는 민족의 최고리익이며 바로 여기에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이 있고 공동선언리행의 앞길에 가로 놓인 난관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열쇠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쌍방이 상급회담 초기에 민족앞에 실질적인 결실을 내놓는 회담으로 되게 할데 대하여 확약한대로 제기된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신의주-서울사이의 철도와 개성-문산사이의 도로련결문제, 개성공업지구 창설문제, 림진강수해방지문제, 전력제공문제, 우리의 동해어장리용문제, 태권도시범단교환문제, 남조선에 남아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송환하는 문제와 흩어 진 가족, 친척문제 등 이번 회담에서 토의할 우리측의 제안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제5차 북남상급회담의 결과는 앞으로 북남관계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쌍방대표들이 이번 회담의 중요성과 민족앞에 지니고 있는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회담에서 훌륭한 결실을 가져 오기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을 적극 환영한다

1. 오늘(18일), 민족의 염원이 아로새겨진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고자,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5개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보도문을 채택, 발표하고 막을 내렸다. 이는 우리 7천만 겨레의 가슴에 조국통일의 희망을 안겨준 또 한번의 중요한 계기라 할 수 있다.

2. 우리 민족사에 길이 남을≪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려는 서로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전제로 하면서, 5개항에 달하는 ≪합의≫를 내외에 천명하였다. 민간급 교류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9개의 약속, 태권도 시범단 교환,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개최 합의 등 5개 항 합의사항을 우리는 온 겨레와 함께 기뻐하며 적극 환영한다.

3. 우리는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하여, 통일을 향해 한 걸음씩 확연히 전진해 나가는 역사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우리민족의 사랑과 지혜에 새로운 자랑을 느낀다. 또한 이번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은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당사자가 우리 민족 자신이며, 통일을 실현하는 힘도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 점을 거듭 확신하게 되었다.

4. 우리는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이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우리민족이 기필코 이루어야 할 민족적 과제로 보고, 그 실현과 ≪6.15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온 민족이 더욱 굳게 힘을 합쳐 나아갈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2001년 9월 18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미국에 대한 습격사건발생, 전국이 대혼란

(평양 9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씨엔엔텔레비죤방송과 미국의 소리방송을 비롯한 외신들의 보도에 의하면 11일 미국에 대한 전례 없는 습격사건들이 일어나 전국이 대혼란속에 빠져 들어 갔다.

이날 오전 9시경 2대의 비행기가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쎈터의 쌍둥이고층건물을 들이 받았다. 이 바람에 두 건물의 웃부분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화염과 검은 연기가 건물주변을 휩싸며 하늘로 타래쳐 올랐다 한다.

한편 비행기 1대가 국방성청사를 들이 받았으며 국무성청사앞에서는 자동차폭발이 일어 나 청사에 불이 달렸고 워싱톤의 여러 기관들이 공격을 받았다.

또한 이날 1대의 비행기가 캠프 데이비드에 있는 대통령별장을 들이 받았다.

습격사건으로 하여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중요기관건물들에서 직원들이 모두 소개되고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시카고 등 전국의 대형건물들에 대한 출입이 봉쇄되였으며 뉴욕금융시장이 페쇄되고 비행장들에서 운행이 중지되였다.

워싱톤에서는 시민들과 자동차들의 시내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며 대학들에서 강의가 중단되고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안전지대로 소개되고 있다.

미국대통령 부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은 국가재난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고 사태의 원인규명과 피해복구작업을 해당 기관들에 지시하였다고 한다.미국의 본토와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비상계엄령이 하달되였다.



태로반대립장 불변

미국에서의 대규모테로공격사건관련 조선외무성대변인

(평양 9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미국에서 일어 난 대규모테로공격사건과 관련하여 1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난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려객기자폭공격에 의한 대규모테로행위는 지금 국제사회의 커다란 경악을 자아 내고 있다.

지극히 유감스럽고 비극적인 이번 사건은 테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

유엔성원국으로서 온갖 형태의 태로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우리 공화국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이런 견지에서 이번 사건을 대하고 있다.

9.11 미국 대참사와 미국 당국의 보복움직임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우리는 먼저 지난 9월 11일 미국의 중심부에서 벌어진 대참변에 의해 희생된 수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먼저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지금도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부상자들이 조속히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리고 충격과 불안에 휩싸인 미국국민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2. 그러나 작금에 벌어지는 미국 당국의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응징에 관련한 움직임에 대해서 단순한 우려를 넘어 새로운 전쟁도발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현재 구체적인 증거나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특정종교, 특정인물, 특정국가를 지목해 보복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또 다른 전인류적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3.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테러를 반대하는 것은 물론, 테러행위에 대해 과도한 군사력을 동원하는 행위 역시,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을 초래한다는 데서 역시 반대한다. 9.11 대참사에 대한 미국 국민의 충격과 불안에 편승해 미국 당국이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군사적 보복은 새로운 폭력과 파괴, 민간학살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는 것으로, 바로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우리땅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실천단 연석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은 지난 9월 11일 대참사가 벌어진 후 희생자와 피해자, 미국 국민에 대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 그동안 진행하던 용산 주한미군 사령부 앞 집회와 시위투쟁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엄중히 지켜왔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아직 유해발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함께, 행여 의도와 다른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집회와 시위투쟁을 유보하기로 결의하였다.

5. 그러나 미국 당국의 거듭되는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보복조치를 전제로 한, 공공연한 보복테러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당국에 이러한 군사패권적 , 폭력적 발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더불어 9.11 미국 대참사를 계기로 진정한 인류평화와 호혜평등에 기초한 미국의 대외정책 수립의 길로 나아가길 바라마지 않는다.

6. ≪우리 땅 용산미군기지되찾기 실천단 연석회의≫는 이후에도 ≪용산미군기지를 서울시민의 품으로≫ 라는 목표를 향해 한결같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다시금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조국의 평화통일, 그리고 미국과의 자주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건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2001년 9월 17일

우리 땅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실천단 연석회의

반미여성회(준) / 문학예술청년공동체 / 청년통일광장 /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반미실천단

≪미국의 보복전쟁 반대≫ 기자회견에 경찰 초강경 대응

시민사회단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적 보복 공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17일 오전 11시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와 민주노총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적 보복 공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은 경찰의 초강경대응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기자회견에 참석할 문정현(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국민행동 상임대표) 신부를 비롯해서 홍근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 공동대표) 목사,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을 고립시키고 집행부를 전원 연행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취재중인 언론사 기자들의 카메라가 부셔지고,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이에 유일하게 연행되지 않은 문정현 신부는 경찰들에 에워싸인 상태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경찰의 강경대응에 대한 항의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강제연행된 20여명의 집행부와 회원들이 풀려나 기자회견 장소로 다시 모이자 경찰은 이규재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등을 또다시 연행했다.

오후 5시경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10여명의 각 단체 회원들이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에게 기자회견 플랭카드를 펼쳐보이자 다시 경찰이 플랭카드를 탈취하고 그 과정에서 문정현 신부와 오두희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그리고 이현철 녹색연합 국장이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등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어 문정현 신부는 한국통신 건물의 환풍구 난간에 올라 ≪미국은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피켓을 들고 경찰의 폭력적인 대응의 사과, 연행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보상, 그리고 폭력적인 진압의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문 신부는 난간에서 호루라기를 불기도 하고 강한 어조로 항의를 해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한편, 상황을 지켜보던 이윤이(33세,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4학년)씨는 ≪경찰의 폭력적인 대응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한국 경찰이 일반시민의 의견 개진을 못하게 하고 평화적 시위를 불법적으로 막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의 이러한 태도는 ≪도저히 민주주의 사회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이윤이 씨는 미국의 테러 대참사에 대해서는 ≪테러는 반대한다. 하지만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어 ≪지금 보복 전쟁 발표는 미국의 해결방식도 테러범들 못지 않게 폭력적≫이라고 지적하고는 ≪미국의 시민반응도 이해할 수 없으며 이를 조장하는 미국의 보수언론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윤이 씨는 ≪미국의 현재 모습은 반성의 여지가 없는 걸로 보인다≫며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김판태 자통협 투쟁국장과 신현훈 민주노총 대회협력실장은 오후 6시 20분에 종로경찰서장과의 면담에 들어가 세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문정현 신부의 1인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주를 ≪전쟁반대 평화주간≫으로 선포하고 내일부터 각 단체의 기자회견 및 항의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 발생한 피해사항에 관해서는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으며 후속 조치는 오늘 각 단체 대표자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오늘 기자회견을 강경 진압한 것은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할 것이라는 판단과 미대사관 옆에서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13일 ≪미국의 제4차 미사일 요격실험과 관련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있고(통일뉴스 7월 13일자 기사 참조),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만을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음에도 종로경찰서장이 아무런 구체적 근거없이 다만 우려에 의해 기자회견을 집회로 판단하고 초강경 진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지적이다.

현재 김판태 투쟁국장에 의하면 종로경찰서장은 면담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세가지 요구사항 모두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기자회견을 빙자한 시위로 이에 대한 대응은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문정현 신부는 저녁 9시 현재까지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오늘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처음 미국의 보복전쟁 반대에 나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과잉진압은 이후 거센반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9-17

≪NO TERROR! NO WAR!≫

가톨릭 단체, 미국의 보복전쟁 반대 기자회견 가져

≪가톨릭평화지기≫ 등 가톨릭 단체들은 18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미국 테러참사 희생자 추모와 전쟁반대를 위한 가톨릭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보복전쟁 방침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의 박순희 상임대표는 ≪평화는 모두를 살릴 것이며 전쟁은 모두를 멸망케 할 것이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테러참사와 보복전쟁 방침에 대한 참가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는 테러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과 유가족에게 먼저 깊은 애도를 표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테러와 전쟁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무력이라는 수단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으로 평화라는 본질적 목표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서는 미국이 테러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전쟁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인류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이성적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메리놀 여자수녀회의 문요안나 수녀는 미국과 세계 평화단체에 보내는 글을 통해 ≪미국의 보복전쟁과 군비강화는 또다른 악의 시작≫임을 주장하며 전쟁반대와 평화를 위한 제반활동과 기도에 같이 나설 것을 제안했다.

한편,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의 양준석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가수 김정식씨의 ≪희생자와 세계평화≫를 위한 추모 노래로 경건하게 시작돼 사뭇 다른 기자회견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



추모노래에 이어 메리놀 외방선교회의 하요셉 신부의 ≪희생된 영혼과 평화를 위한 기도≫가 있었다. 하요셉 신부는 ≪복수나 전쟁으로 인하여 또 다른 희생이 생기는 것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역사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보다 평화로운 세계 건설을 위해 이끌어 줄≫ 것에 대해 기도했다.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신성국 공동대표는 추모사를 통해 테러 희생자들의 가족과 벗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보복전쟁을 감행하는 행위는 전쟁의 잔학성으로 인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게 하는 행위로 매우 우려스러움을 표했다.

이날 참가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명동성당에 있는 마리아 상 앞에서 ≪희생자와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희생자들을 위해 준비한 꽃을 헌화했다.

오늘 열린 가톨릭 단체들의 미국 보복전쟁반대 기자회견은 어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에 이어진 것으로, 이후 각계에서 이와 같은 기자회견과 반대집회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어서 전쟁이 아닌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국민적 여론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송정미 기자(jmsong@tognilnews.com)
통일뉴스 2001-09-18

미국과 세계 평화단체에게 보내는 글

미국의 보복전쟁과 군비강화는 또다른 악의 시작입니다

1. 우리는 지난 11일 뉴욕과 워싱턴 한 복판에서 벌어진 테러에 의한 참사에 충격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찍이 이같은 테러를 당한 적이 없기에 미국인들은 집단적 공포와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희생당한 가족들과 친지들의 분노와 아픔을 뭐라 달래야 할지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2. 사실 이번 테러는 갈등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는 민간인들을 희생하게 되어 어떠한 명분을 통해서라도 지지받을 수 없으며, 이같은 수만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규모의 테러는 평화를 애호하는 세계인들에게 규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어떠한 테러도 용납되어서도 않되며 아무리 억울한 자신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테러의 방법으로 표현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의지를 밝힙니다.

3. 하지만 세계 많은 시민들은 현재 부시정부가 뚜렷하게 혐의나 범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었는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전시상황에 돌입하고, 이슬람교도를 악의 화신처럼 선정적으로 호도함으로써 전세계가 문명간의 충돌이라는 종교간의 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

려하고 있습니다. 테러든 보복전쟁이든 이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는 대규모의 민간인 학살이고, 테러는 전쟁을 낳고, 전쟁은 또다른 인류의 재앙을 낳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4. 미국인이 테러 참사를 통해 고통을 겪고 있듯이 대규모 공격이 예상되는 아프칸의 민중 또한 보복전쟁을 통해 무고하게 희생된다라면 과연 무엇이 선이고 정의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미국인의 아픔에 세계인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듯이 아프칸의 민중 또한 우리의 슬픔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미국이 10년전 이라크 초토화 작전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왜 이슬람에 적대시하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슬람은 미국을 악의 화신으로 규정하고 성전을 선포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 곰곰이 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우리는 어떠한 명분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주창하는 마음으로 미국정부와 세계 평화단체에 호소합니다.

우선, 미국과 전세계 평화단체는 희생자들의 가족과 친지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그리고 파괴된 건물을 복구하는데 전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둘째, 이번 테러의 배후를 의혹이 아닌 구체적인 수사와 물증을 통해 확인시켜내야 하고 그 테러의 재발방지를 위한 전세계적 노력과 시스템 구축을 먼저 해야합니다.

셋째, 사실 이번 테러의 뿌리는 미국의 대군사주의 우위정책과 MD추진, 아랍계의 생존권 무시정책, 신자유주의 등 일련의 미국의 강경정책에 있기에 미국이 정책철회와 전환을 통해 테러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뜻을 미국과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전하며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부터라도 함께 연대하여 전쟁반대와 평화를 위한 제반활동과 기도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2001. 9. 18(화) 가톨릭 평화지기

성 명 서

평화는 모두를 살릴 것이며 전쟁은 모두를 멸망케 할 것이다

우리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에 의한 대참사를 목격하면서 먼저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테러는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이에 대해 평화라는 이름의 또다른 보복과 응징, 역시 폭력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함으로 결국 세계공동체 스스로를 파괴하는 엄청난 역사적 죄악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지구촌은 이미 위기상황입니다. 세계 도처에 대립과 분쟁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약소국가의 민족은 빈곤의 고통과 울부짖음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패권의식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제국의 시대에 인류의 정의와 평화는 사라졌고 인간의 소중함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세계화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극단적 경쟁과 불평등과 인간소외는 더 이상 우리에게 평화라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절망과 회의를 안겨주었습니다.

부시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의 강경 외교정책은 중동의 깊은 갈등을 제공했으며 부추겼으며, 교토기후 협약의 거부, 최근의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에 대한 회의에서의 퇴장등 힘의 논리에 의한 비이성적인 태도는 세계의 양심세력에게 많은 실망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미국의 테러 대참사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참사뿐만 아니라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고 투신하는 세계의 양심인들에게는 커다란 고통과 시련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사건이 국제사회에 던져준 역사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식별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피와 피≫를 부르는 테러와 보복, 전쟁과 죽음으로 계속적인 위기의 나락으로 빠져들어 갈 것입니다.

따라서 소수의 테러범에 대한 응징이라는 이유로 미국이 엄연한 주권국가의 아프칸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폭격을 한다면 대량의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과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테러와 전쟁은 이유야 어떻든 또같이 무력이라는 수단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으로 평화라는 본질적 목표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평화의 왕≫이라 불리웠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준 이 메시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성적 태도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불평등과 전쟁과 인간의 소외를 해결하여 인류 공동선을 촉진하는 데에 헌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간곡히 촉구합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에 대한 열렬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테러에 대한 보복이라는 수단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공존하는 인류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새로운 기회로 자신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이성적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평화의 사도로서 이번 미국 테러 대참사가 하루빨리 수습되기를 기도드리며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테러가 없고 전쟁이 없는 세계를 위해 투신한 것을 약속합니다.

2001. 9. 18(화) 가톨릭 평화지기

테러와 대결을 넘어서서 평화의 세기로 나아가자

테러반대와 평화실현 및 전군비상령해제 촉구 성명서

미국은 MD추진등 일련의 강경정책을 중지하고 평화실현의 길로 나아오라!
국방부는 한국군에 대한 전군 비상령을 해제하라!

우리는 지난밤 세계의 중심도시인 뉴욕 한 복판에서 벌어진 자살테러에 의한 참혹한 결과에 대해 충격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테러범들은 민간인들이 수백명이나 탑승한 항공기를 공중납치하여 빌딩과 충돌하고 국방부에 자살 공격을 가함으로 인해 비행기에 탑승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내었을 뿐만 아니라 빌딩의 붕괴로 인해 수만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테러는 본래 힘이 약한 편이 강한 편을 상대로하여 자신의 주장과 이익을 위해 싸우는 비정규적인 형태의 전쟁이다. 테러는 갈등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희생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같은 수만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규모의 테러는 평화를 애호하는 세계인들에게 규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테러의 대상이 되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테러는 용납되어서도 않되며 아무리 억울한 자신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테러의 방법으로 표현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의지를 밝힌다.

하지만 우리는 이같은 테러가 계속되는 상황의 근본 원인에 대해 차제에 깊이 통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며 진정한 평화는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미군 구축함에 대한 테러, 1993년의 세계무역센터 주차장에서의 폭탄테러, 현재 이스라엘에서 계속되고 있는 자살 폭탄테러 등 지구상에서 테러가 계속되는 현실만 보아도 지금과 같은 보복에 의한 테러방지라는 방법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우리는 특히 이번 테러 사건이 미국의 부시정권이 취하고 있는 친이스라엘 강경정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부시는 집권이후 일련의 강경정책을 계속 전개해왔다. 중동에서는 친이스라엘 강경정책, 한반도에서는 대북강경정책, 경제에서는 신자유주의 강경정책, 환경에서는 교토의정서 탈퇴,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위한 강경정책 등 부시는 세계무대 등장 이후 일촉즉발의 위기로 온세계를 몰아가고 있었다. 게다가 지난 주에는 유엔에서 주최한 인종차별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을 두둔하여 회의 도중 퇴장하는 모습까지 보여

주었다.

우리는 테러에 반대하고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의 계속되는 강경정책은 테러적 수단에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 동정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테러에 반대하는 전세계의 평화애호 인류가 갖고 있는 미국의 평화노력에 대한 지지를 잃게 되는 결과를 빚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따라서 미국은 테러에 대해서는 응징해야 마땅하지만, 미사일 방어망 추진, 대북강경정책, 친이스라엘 중동정책,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등 일련의 강경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평화정책을 실시하는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더 이상 테러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군의 비상경계령 발동에 대해 이를 즉각적으로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전세계는 미국에 대한 자살테러를 규탄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모든 나라들의 대응은 비상대책회의 등 정부와 외교적 차원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지 군사적인 차원에서 대응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일본도 자위대에 비상경계령을 내려놓고 있지 않다.

주한미군이야 자기나라의 명령에 따라 특별경계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에 덩달아 한국군 전군에 내려져있는 비상경계령이라는 것은 참으로 의아한 조치이다.

지금 테러의 원인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은 중동지역의 테러조직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군이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있다는 말은 웬 엉뚱한 소리인가?

한국군은 다 알 듯이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주적개념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테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비상경계령이란 곧 북한을 테러조직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게다가 지금 남북간에는 오는 15일, 즉 금주 토요일이면 장관들이 모여 남북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북의 군대 책임자인 인민무력부장이 장관급 회담에 앉고, 남의 군대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이 회담 자리에 함께하는 곳에서 상대에게 비상경계령을 내려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도데체 무슨 말도 되지 않는 것인가?

아무리 우리 군대의 지휘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지만 미국과 테러집단간의 갈등을 남북간의 갈등으로 몰고갈 이유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지금 국방장관은 미국에 대해 지나친 사대주의적 행동을 해서 불필요한 남북간의 오해와 갈등을 야기시켜 오랜만에 열리는 당국간 회담에 찬물을 끼얹고 인위적인 장애만 조성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현상황에서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외교적, 정치적 방법으로 하면되는 것이지 괜히 남북간 긁어부스럼만 만들고 외교적인 우스개거리만 되며, 실제적 의미도 없는 전군의 비상경계령은 해제해야 마땅한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진정으로 테러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한다면 진정한 평화정책을 실시해 테러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며 그 실천으로 MD(미사일방어망)철회, 대북강경정책철회, 친이스라엘정책 철회를 제시한다.

또한 국방부는 참으로 엉뚱하고도 코미디같은 전군비상경계령을 해제하여 남북당국간 대화를 위한 걸림돌을 제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테러로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명한다.

2001년 9월 12일
기독시민사회연대 평화통일위원회

민변, ≪미국 전쟁위협 중단≫ 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은 18일 미국의 세계무역센터와 국방성에 대한 전대미문의 동시다발 테러와 관련 미국의 보복전쟁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테러에 의한 참혹한 광경은 테러의 반인륜성과 무차별한 잔혹함을 똑똑히 실감했다≫며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든 선량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엄중한 법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그러나 ≪이 사건을 빌미로 미국은 테러집단은 물론 그들을 지원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복수하겠다는 힘에 의한 응징과 보복정책을 선언하며 21세기 첫 전쟁의 위험한 길로 치닫는 미국의 태도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미국은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전쟁 위협을 중단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법과 국제협력을 통해 이번 사건의 테러범을 색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미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국 테러조직 소탕을 위해 암살공작을 수행할 듯이 공언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 사태가 미국이 수십 년간 취해 온 패권정책 특히, 부시 행정부 들어 강화돼온 차별적 대외정책의 반향임을 잊고 있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변은 ≪우리 정부가 전쟁으로 치닫는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동의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입장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미국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 2001 OhmyNews
2001/09/18 오후 4:33:22

세계 네티즌, 미 보복공격 반대 서명운동



센프란시스코 반전집회

뉴욕과 워싱턴 테러에 대한 미국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전세계 네티즌들이 하나둘 동참하고 있다.

최근 탄원전문사이트인 Thepetitionsite.com에 개설된 미 대통령 부시에게 보내는 ≪평화와 정의를 요구한다(CALL FOR PEACE & JUSTICE!)≫ (www.thepetitionsite.com/takeaction/224622495)는 탄원서 서명운동에 수많은 세계 네티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탄원서에서는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여파 속에서도 미국 지도자들이 모든 나라의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정의를 지킬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평화와 정의이지 보복이 아니라면서 미국의 보복공격을 반대했다.

17일 현재까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낼 탄원서에 서명한 네티즌들은 모두 5만5천635명으로 여기에는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 멕시코, 오스트리아, 일본 등 전세계 네티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피는 또 다른 피를 불러 온다. 미국이 보복한다면 테러범과 다를 것이 없다,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등의 이유로 보복에 반대했다.

영국의 Peter Young 네티즌은 ≪무고한 사람에 대한 또다른 공격은 단지 더 많은 증오를 불러 올 것이며 누구에게도 평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네티즌은 ≪우리는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대한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하지만, 복수는 그에 대한 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브루네이의 한 네티즌은 ≪이번 공격으로 수천명이 죽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수천명을 죽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테러에 대한 처벌은 무고한 사람들이 아니라 책임자에게 물어야 한다≫며 미국의 냉철한 대응을 요구했다.

서명에는 미국 네티즌도 상당수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부시 대통령에게 군사적 보복보다는 평화와 용서를 주문하고 있었다.

익명의 미국인은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 용서는 폭력보다 강력하다≫고 말했으며 Maya M. Hara 네티즌은 ≪광기를 멈춰라. 더 많은 피를 흘리는 것은 단지 주기를 영속시킬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Rebecca Cataldi은 ≪우리는 폭력 혁명주의자처럼 폭력과 복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를 선택하는 것으로 이 무서운 비극에 대응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와 함께 우정과 존경, 그리고 신뢰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는 진실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백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번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네티즌들이 빠르게 늘어 나고 있는데, 이는 네티즌들이 이메일로 각국의 친구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Thepetitionsite.com측은 최초 2만명의 탄원서를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오용 기자 oykwon@newsboy.co.kr
2001/09/17 (12:32)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지금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계가 얼마전 일본이 대형운반로켓 ≪에이취-2에이≫를 시험발사한 것과 관련하여 날이 갈수록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규탄하고 있다.

내외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당국이 강행한 이번 로켓 시험발사의 목적은 그들이 떠드는 이른바 ≪우주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한반도재침과 아시아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려는데 있다.

일본당국자들 자신도 이번에 발사된 로켓이 군사적목적에 전용될수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방위청장관도 그것이 북조선의 미사일에 대응한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떠들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 우리 겨레와 전 인류는 한반도와 지구촌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이러한 시대적요구에 역행해 제2차세계대전에서 참패한 수치를 씻기 위한 복수를 부르짖으며 우리 국민과 아시아 민중들을 또다시 피바다속에 몰아넣기 위한 핵침략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군사대국화에로 줄달음치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일본이 감행한 로켓시험발사를 평화와 안전을 염원하는 온 겨레와 세계평화애호민중들에 대한 악랄한 도전행위로, 한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엄중한 군사력증강책동으로 미국의 무분별한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에 협력해 ≪우주군사화≫를 가속화하려는 용납못할 범죄행위로 낙인찍고 이를 준열히 단죄규탄한다.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부활과 한반도에 대한 침략책동은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일본반동들의 군국화책동이 공공연히 추진되는 속에 세계적인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일본총리와 국회의원무리들이 버젓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였는가 하면 역사교과서왜곡수정놀이를 벌여 침략적인 과거사를 정당화하며 해외침략의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 감행된 로켓시험발사는 한반도와 아시아를 군사적으로 병탄하고 아시아의 맹주가 되려는 일본의 어리석은 책동이 정책단계를 벗어나 무모한 실천단계에 들어섰음을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

더욱이 간과할수 없는 것은 이북의 평화적위성발사를 미사일발사로 우겨대며 악의에 차서 헐뜯던 일본이 실제로는 그 위협설의 막후에서 미국을 등에 업고 미사일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핵전쟁책동에 광분하여 온 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이북의 미사일위협을 걸고들며 미국과 공조하여 전역미사일방어체제공동개발을 악랄히 추진하였는가 하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적극 편승해 모험적인 북침공격준비책동에 혈안이 되어 왔다.

해외침략을 당장이라도 실현할수 있게 자위대의 법제정을 완료하고 수만개의 핵폭탄을 제조할수 있는 방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대형장거리운반수단까지 갖추게 된 일본이 언제든지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이번 일본의 로켓시험발사는 명백히 우리 민중과 이북을 겨냥한 것으로써 반북대결을 고취하고 침략적인 최신예 살인무기장비를 갖추려는 호전적인 기도의 직접적발로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북의 상용무기감축까지 걸고들면서도 일본반동들의 핵무장화는 묵인비호하며 양면적인 이중기준책동으로 그들의 해외침략을 적극 부추기고 있다.

제반 사실은 미국과 일본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한반도와 아시아지배야망에는 변함이 없으며 군사적우위를 확보해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핵무장화책동과 군국주의부활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한다.

각계 애국민중은 우리 민족의 생존을 핵참화속에 몰아넣으려고 핵무장화책동에 혈안이 되고 있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적책동을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반일반전투쟁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 것이다.



일본의 차세대 H-2A로켓

주체90, (2001)년 9월 14일
서울

서울대 ≪6.15기념탑 철거≫ 항의 농성 중

서울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6.15공동선언 기념탑 원상회복과 민족 서울대 수호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는 ≪6.15공동선언 기념탑≫의 원상복구를 주장하며 대학본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어 학교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 기념탑은 서울대 학생으로 구성된 ≪6.15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준비위원회(준비위원회)≫가 6.15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학생들로부터 벽돌 한 장씩을 기증 받아 7월 25일 학교 정문에 건립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이 기념탑을 무허가 조형물로 규정하고 지난달(8월) 25일 전격 철거하자 학생들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긴급하게 구성해 이달(9월) 12일부터 농성에 돌입했다.

같은날 진상조사위원회는 교내집회를 열고 대학본부에게 ≪철거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 기념탑 원상복구와 6.15공동선언에 대한 학교측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대학본부 건물을 향해 계란을 투척했다. 또한 이날 진상조사위원회 김형곤(국민윤리교육, 4년) 위원장은 삭발로서 결의를 다졌다.

17일 오후 농성장에서 만난 김형곤 위원장은 ≪탑의 자진철거 의사를 묻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철거한 것은 6.15공동선언을 훼손하려고 하는 의도이며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하고 이번 투쟁을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대학본부의 학생과 관계자는 ≪김형곤 학생 등은 시설물건립위원회의 승인요청도 하지 않은 채 건립을 추진해 철거가 불가피했다≫며 당시 현장에서 건립중지를 요청하며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학생처 김기선 부처장은 ≪이미 7월 29일 처실국장회의에서 철거하기로 이미 결정났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개학 전에 급하게 철거하게 됐다≫고 해명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반통일 세력이라고 지목 받아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학교측은 14일 ≪6.15공동선언 기념탑 철거와 관련한 대학의 입장≫이라는 공문을 통해 ≪서로 이해가 부족했으며 학교는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국립기관이므로 6.15공동선언에 대한 입장은 국가의 의지와 같다≫며 ≪공동선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진상조사위원회 앞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측은 기념탑을 철거한 행위는 명백히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것을 계획하고 있다.

김형곤 위원장은 ≪대학본부는 예전의 경험으로 보아 본 사건에 대해 외면하거나 무시 혹은 질질 끌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나 1년이 넘더라도 기필코 사과를 받아내고 기념탑을 원상복구시킬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원상복구를 주장하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와 원상복구는 무리라는 학교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기념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달 20일까지 학생들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며 학교측과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하여 2차 투쟁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농성장 앞에는 5차 장관급회담을 기념하기 위해 태극기와 나란히 한반도기가 걸려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절차를 밟지 않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처사에 몹시 불쾌해하며, 오늘 오후 이와 관련해 학장.부학장회의가 열린다고 전해 이후 학교측과 진상조사위원회 간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9-17

통일을 향한 큰 발걸음

≪통일시대≫ 실천 총화

6.15공동선언 이후 우리 칠천만 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향한 진군은 어느 누구도 가로 막을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성과로 이루어진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은 분단 56년만에 처음으로 남북해외의 동포가 모여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루자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민족 대화합의 장이었습니다.

이러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의 의의와 성과를 축소하고 오히려 통일의 큰 흐름을 되돌리려고 하는 반통일수구세력의 광기어린 행각을 결코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수원새시대청년연대는

1. 2001년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과와 의의를 알려내고, 반통일 수구세력의 광기어린 행각들을 알려내기 위해 9월 11~ 15일까지 매일 실천을 전개했습니다.

2. 9월 11일에는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로역정≫이라는 노동자대회에서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며, 노동자분들과 함께 우리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것은 미국을 위시한 반통일 세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3. 또한 수원역 광장에서 ≪통일시대≫를 시민분들께 나누어 드리며 통일에 대한 염원을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4. 저희 실천을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5. 저희 수원새시대청년연대는 한나라당, 조선일보등의 반통일 행각들을 알려내고, 칠천만 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는데 앞장설 것을 청년의 이름으로 약속드립니다.

수/원/새/시/대/청/년/연/대



우리의 상용무력은 미국의 침략무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

조선중앙통신 론평



(평양 9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미국방성 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피터 브룩스가 7일 기자회견에서 ≪국방전략재검토≫에서의 미군사력 재배치와 관련하여 남조선주둔 미군의 군사력을 그대로 유지할것이라고 하였는가 하면 분계연선지역에 전개된 우리의 ≪상용무력축감≫문제 토의가 거절되는 경우 조미대화를 재개할 의향이 없다고 공언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를 더는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조선인민의 민족적요구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진정으로 조미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 미국의 현 행정부의 립장과 자세를 그대로 보여 주는것이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조선반도에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을 초래하고 항시적인 전쟁위험을 불러 왔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우기 랭전이 종식되고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는 오늘 남조선주둔 미군이 존재해야 할 명분은 더욱 없어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부쉬행정부는 저들의 전략적리해관계로부터 남조선주둔 미군을 철수하기는커녕 더욱 보강 증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브룩스가 아시아의 전략적중요성과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리익이 갈수록 더 커 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공약과 대응능력은 과거에도 그랬던것처럼 앞으로 일어 날 어떠한 비상상황에도 대처할수 있는 수준으로 남아 있을것≫이라고 강조한것이나 유럽주둔 미군장비의 남조선에로의 배비 등 최근의 움직임이 그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미국이 걸고 드는 우리의 상용무력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철저히 자위적무력이며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우리를 겨냥하여 남조선에 전개하여 놓은 방대한 침략무력에 대응하기 위한것이다.

≪상용무력축감≫은 우리에게 무장해제를 강요하는 날강도적주장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남조선주둔 미군을 비롯한 수많은 병력과 장비의 철수이후에나 론의할수 있는 문제이다.

미국이 앞에서는 우리와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떠들면서도 계속 ≪상용무력축감≫에 대해 론하며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를 한사코 부정하는것은 겉과 속이 다른 행위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관계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조선반도의 긍정적인 사태발전을 저해하는 남조선주둔 미군을 지체없이 철수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방성 부차관보가 주한미군사력을 현상태로 유지할 것이라고 떠들어댄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방송 9월 11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방성 아태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8일 국방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달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4개년국방전략재검토에서 미군사력재배치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군사능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것은 주한미군과 핵무기들을 모두 철수하라는 내외여론에 대한 악랄한 도전행위라 하겠습니다. 지금 내외여론은 한결같이 6.15남북공동선언발표후 남북사이에 좋게 발전하는 화해와 협력, 통일에 걸맞게 주한미군과 모든 군사장비들을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매우 정당한 것입니다. 미침략군은 이땅을 강점한 첫날부터 오늘까지 남북간의 분열을 지속시키고 한반도문제의 평화적해결을 막아나섰으며 미군에 의해 헤아릴수 없는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미군의 한국강점이 없었더라면 우리 민족은 56년이라는 분열의 비극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미군철수는 더이상 미룰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민심과 대세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을 역설하고 있으니 미국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교란하고 통일을 반대하는 기본장본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내정간섭과 주한미군때문에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한반도정세는 또다시 위험한 전쟁상태에 직면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으면 6.15남북공동선언도 이행할수 없고 북침전쟁도 방지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민중과 인류양심은 이땅에서 주한미군이 즉시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역사적인 러시아공식방문에서 채택발표하신 모스크바선언에서 주한미군철수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것을 다시금 국제사회에 엄숙히 선포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사활적요구와 시대적요청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이 중대한 선언은 지금 내외의 폭풍같은 반향과 절대적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귀담아듣고 시대착오적인 침략정책을 즉시 포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해 주한미군과 핵무기들을 철수시킴과 함께 이땅에서 식민지지배와 간섭의 손을 떼야합니다.

만일 한반도에서 진쟁이 아니라 평화를, 분열이 아니라 통일을 바라는 각계 애국민중의 지향과 요구를 거역하고 부시행정부가 여전히 대북강경정책에 매달리면서 주한미군을 장기주둔시키려고 책동한다면 우리 민중의 거센 분노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오늘 국민대중은 어제날 미국을 해방자, 원조자로 생각하고 할애비처럼 섬기면서 사대굴종의식에 포로되었던 민중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것을 똑똑히 알고 한국민중의 거세찬 분노에 직면하기 전에 영예로운 철수를 해야 합니다.

현실은 우리 민중은 물론 양심적인 미국인들, 심지어 미국회의원들까지도 주한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는 이런 사실을 똑바로 보고 주한미군의 장기주둔론을 즉시 철회하고 철수용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년학생들과 인민들 ≪한나라당≫ 해체를 요구

(평양 9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근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속에서 ≪한나라당≫을 반통일,반민족 집단으로 락인하고 그의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련합소속 대학생들은 전남대학교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가지고 ≪친일가계의 후손이자 통일론의를 저해하는 리회창을 정계에서 은퇴시키고 력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웨쳤다.

학생들은 리회창이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공동선언의 리행을 반대하며 ≪남북간 랭전기류를 조성≫하고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7일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나라당≫사앞에서 리회창정치활동 대학생감시단 발족을 선포하고 그의 정치활동을 감시해 나갈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학생 40여명은 ≪한나라당≫사앞에서 ≪반통일,반민족세력 한나라당은 해체하라≫는 구호를 웨치며 건물을 향해 썩은 닭알과 빽끼가 들어 있는 봉투를 던지며 기습시위를 벌렸다.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투쟁은 남조선각계에서도 벌어 지고 있다.

지난 8월 2일 ≪한나라당≫이 ≪전교조≫를 ≪사회주의적인 집단≫으로 몰아 붙이자 ≪민주로총≫,≪전국언론로동조합련맹≫ 등의 단체 회원들은 ≪한나라당≫사를 찾아 가 공개질의서를 내고 사과할것을 요구하였으며 ≪전교조≫ 성원들은 리회창에 대한 격분을 표시하면서 항의시위를 벌렸다.

1일에는 신문개혁국민행동,≪전국언론로동조합련맹≫ 등 각계의 시민,사회단체 성원들과 ≪전국대학신문기자련합≫소속 대학생들이 ≪한나라당≫사앞에서 련합집회를 가지고 ≪한나라당≫이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을 정치적으로 모독하고 있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이날 민주언론운동시민련합 사무총장 등 성원들은 집회를 마치고 시민,사회단체의 공식항의서한을 들이대기 위해 ≪한나라당≫사안으로 진입하다가 이를 가로 막아 나서는 경찰들과 맞서 싸웠다.

또한 카톨릭교,불교,개신교,원불교 4개 종교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언론개혁을 위한 종교인 1,000인선언준비위원회는 ≪한나라당≫이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종교단체를 당국의 외곽조직인것처럼 몰아 대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책임적인 사죄를 하라고 들이대였다.

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도 ≪한나라당≫이 작가회의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을 ≪정부 외곽단체≫로 단정한데 대해 항의성명을 내고 그에 대한 발언을 철회할것과 사죄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두눈 똑바로 뜨고 보자!

이회창은 국사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도를 넘어선 이회창의 '돌출행동'

우리는 그를 한국의 고이즈미, 2천년대의 김영삼이라 부릅니다



이회창을 반대하는 청년학생들의 투쟁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방송 9월 10일

이미 보도된 것처럼 남총련소속 학생 100여명은 지난 8일 전남대 후문 후문 광장에서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정계은퇴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이회창은 민심과 대세를 역행하며 공동선언의 이행을 반대해 남북한 냉전기류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이회창은 대북협력사업을 시비질하고 매도하며 남북관계를 돌려세우고 있는가하면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책과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에 찬성하는 등 친미사대주의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친일사대의 후손이자 통일논의를 저해하는 이회창을 정계에서 은퇴시키고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한총련소속 대학생 10여명은 지난 8일 한나라당 사앞에 모여 이회창정치활동대학생감시단발족식을 갖고 이회창이 6.15남북공동선언정신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회창바로보기운동과 이회창에 대한 제보전화받기운동 등 이회창정치감시활동을 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회창의 극악한 반통일책동을 저지파탄시켜 6.15공동선언이행을 통한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앞당기려는 청년학생들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지극히 정당한 투쟁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회창의 반민족, 반통일책동은 날이 갈에 따라 그 도를 넘어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도 이회창은 온 민족의 기대와 관심속에 민족통일대축제로 치뤄진 8.15평양통일축전을 그 누구의 통일전선전략의 이용이라느니 하면서 남측대표단의 방북자체를 반대했는가 하면 그것이 실패하자 방북단의 활동을 그 무슨 돌출행동으로 걸고들며 여론을 오도하고 공안당국을 사촉해 방북인사들을 체포구속하는 탄압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런가하면 이를 빌미로 대북관계를 주관해오던 통일부장관을 제거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재검토를 운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있은 의원총회에서는 또다시 반북적인 상호주의와 투명성보장 등을 주장해나섰습니다.

이회창의 이같은 책동으로해서 8.15평양통일축전을 계기로 남북의 화해와 통일기운이 더 세차게 끓어번져야 할 시기에 유독 이땅에서만은 싸늘한 냉전기류만이 떠도는 비정상적인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되돌아보면 이회창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4.8합의서가 발표되었을 때에도 남북정상회담은 시기상조라느니 북에 가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느니 하면서 반대해 나섰는가 하면 6.15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어느 내용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걸며 사실상 이를 반대했습니다. 이밖에도 6.15공동선언발표로 드높아진 온 민족의 통일열기를 **으로 모독하고 6.15공동선언이행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경협사업을 퍼주기로 모독하면서 상호주의를 표방해 나섰는가하면 전국민적인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요구를 정면으로 반대해 나선 것을 비롯해 그 사실들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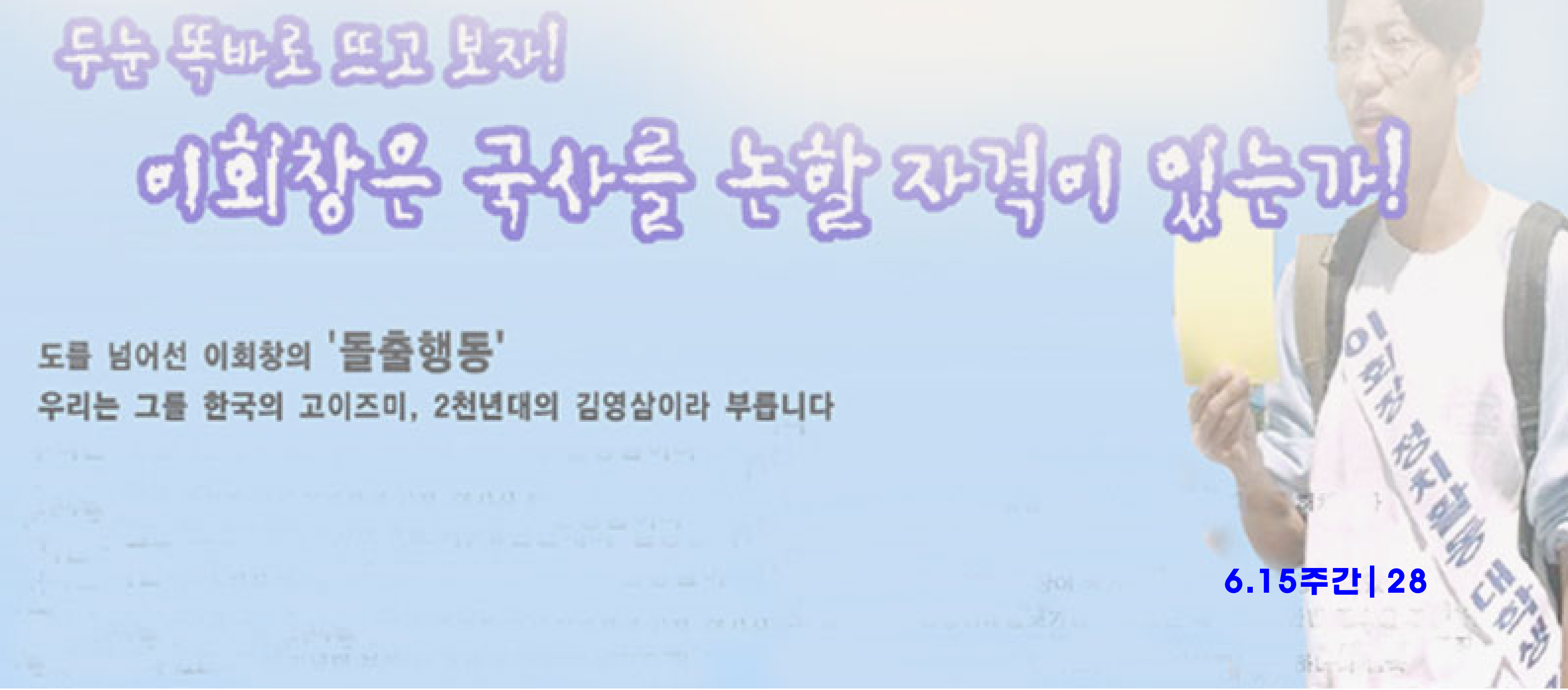
더욱이 이회창이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책동과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서 한미공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이회창의 추악한 친미사대매국적인 정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이회창은 그 적소부터 극악한 친일매국노가문의 종자로써 정계에 나선 것 자체부터가 비정상적인 일이고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회창이 친일분자의 적소에서 탄생해 지금까지 자행한 반민족, 반통일행위만을 가지고도 역사의 심판을 면할수 없습니다.

이같은 민족반역자가 국민의 심판을 받기는커녕 아직까지 제노라으시대며 반통일행위만을 일삼고 있으니 실로 경악할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회창의 이같은 반역행위가 계속 자행될경우 우리 국민과 민족앞에 초래될 파국적결과에 대해서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이 반이회창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이고 있는 것은 국민적견지에서 보나, 민족이익의 견지에서 보나, 남북의 화해와 통일적견지에서 보나 지극히 의로운 것이라 하겠습니다.

독초는 제때에 뽑아 버려야합니다. 각계 민중 여러분은 이회창의 반역적정체를 똑바로 가려보고 청년학생들의 반이회창투쟁에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써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앞당겨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우익세력의 반통일행위 용납할수 없다

구국의 소리 방송 9월 14~16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최근 한나라당내 보수우익세력들이 8.15에 즈음해 평양에서 열린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참가자들 가운데서 일부 인사들의 활동을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괴이한 소동을 피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엔 이와 관련해서 얘길 나눠봤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럼 먼저 한나라당내 보수우익세력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김현규 :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을 비롯해서 사무총장이니 대변인이니 하는 보수우익세력은 이번 민족통일대축전행사참가자들의 활동을 걸고들면서 그들에게 친북파니, 친북주의자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딱지를 붙여가며 엄중처벌해야한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더욱이 간과할수 없는 것은 보수우익세력이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일부성원들의 이른바 돌출행동에 대해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면서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었을뿐 아니라 국민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횡설수설한 것입니다.

사회자 :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북을 다녀온 사람들은 다 친북주의자로 되고 북에서 활동한 모든 인사들의 행동은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고 국민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에 파렴치한 궤변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발표이후 노동자, 농민을 비롯해서 언론계, 재계, 종교계 등 수많은 각계인사들이 이북을 다녀왔고 이 과정을 통해 서로 신뢰하고 통일의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마련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남북관계개선에서도 일찍이 없었던 긍정적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건 6.15남북공동선언의 당위성과 활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또 방북인사들이 벌인 활동의 열매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우익세력은 이 엄연한 현실을 보지않고 방북인사들을 친북세력으로 몰아붙이고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생억지를 쓰고 있으니 어찌 분격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사회자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개선에서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들을 외면하고 악의에 찬 험담을 늘어놓는 보수우익세력의 작태야말로 6.15공동선언이행에 훼방을 놓고 통일을 반대하는 범죄행위라고 밖에 달리는 볼수 없을 것 같아요.

김현규 : 그렇죠. 이회창을 비롯한 보수우익세력의 반민족적, 반통일적범죄행위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만고대죄입니다. 사실 남북관계개선에 훼방을 놓으면서 나쁜 짓을 한건 다름아닌 보수우익세력이죠.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한 것도 보수우익세력이였고 북과의 관계에서 투명성, 검증이니 퍼만준다느니 하면서 온당치 못한 망언을 늘어놓으며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동족사이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한 것도 바로 보수우익세력이였습니다. 이같은 범죄로 얼룩져온 보수우익세력이기에 이번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참가자들의 이른바 돌출행동을 문제삼으며 악착하게 책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회창을 비롯한 보수우익세력의 이러한 행동은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하고 민족의 자주통일을 반대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집단만이 자행할수 있는 범죄행위로써 결코 정당화될수 없습니다.

사회자 : 그럼요. 더욱이 용납할수 없는건 보수우익세력이 조선일보와 같은 매문지, 보수언론을 통해 현실을 왜곡보도하고 국민들속에 이념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김현규 : 그렇죠. 이번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으로 말하면 분단사상 처음으로 열린 남과 북, 해외, 정당단체대표들이 대거참석해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민족대회합, 통일대회합이였습니다. 남과 북, 해외의 각계 인사들은 이번 축전을 통해 6.15공동선언의 실천의지를 재확인했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해 헌신할 것을 결의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땅의 보수우익세력은 민족통일대축전이 거둔 성과를 외면하고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언론지를 통해 행사참가자들의 이른바 돌출행동을 부각시키며 색깔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불순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고 민의를 배반한 보수우익세력의 반통일적, 반민족적행위로써 민족과 역사앞에 심판받아야 할 범죄행위입니다.

사회자 : 그리고 보면 이회창을 비롯한 보수우익세력이 있는 한 6.15공동선언의 성과적이행도, 민족의 자주통일도 바랄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김현규 : 그야 물론이죠. 보수우익세력이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행사에서 거둔 성과들을 찬양하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왜곡과장해 반통일적이념공세에 악용하고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행위라고 봅니다. 이런 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진전도 기대할수 없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만이 커가고 민족의 자주통일을 위한 앞길에 엄중한 난관만이 조성될 겁니다. 그런만큼 보수우익세력의 반통일책동을 분쇄하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야하죠.

사회자 : 네, 옳은 말씀입니다. 시대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고 조국과 민족앞에 반역하는 이회창을 우두머리로 하는 보수우익세력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는 건 시대의 요청이고 민족의 요구입니다. 그런만큼 각계층 민중은 현실의 요청에 부응해서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감으로써 조국의 자주통일을 앞당겨오는데 적극 기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보수우익세력의 반통일행위 용납할수 없다≫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드렸습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악한이 제명을 다 산 예가 없다 할겁니다.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일본의 도조가 그렇게 죽었고 이승만과 박정희가 그렇게 저승에 갔습니다. 통일이라면 게거품을 물고 반대해나서는 반통일패당의 운명 또한 달리될수 없다 할겁니다.



이회창은 남북대화의 걸림돌

재야인사 이정수씨 / 구국의 소리 방송 9월 12~14일

사람이 수치를 느낄줄 모르면 짐승과 다를바 없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이회창과 같이 애당초 수치니 염치니하는 것과는 담을 쌓고 있는 몰지각한 인간을 두고 하는 말이라 하겠다. 이회창이 얼마나 수치를 느낄줄 모르는 천치인가하는 것은 북의 남북대화제의와 관련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며 악랄하게 헐뜯고 있는 것을 놓고도 잘알수 있다.

최근 남북당국사이에 대화를 재개할데 관한 북의 제의에 대해 이회창패당은 누구의 구출작전이니 어느 장관에 대한 신임이니 뭐니 하며 북의 성실한 대화자세를 모독했다. 그것도 부족해 국회마당을 남북대결장으로까지 이용했다. 제 처지도 모르는 주제에 북을 걸고들며 비열한 작태를 연출하는 것을 보면 수치를 전혀 느낄줄 모르는 반통일역적의 가소로운 추태의 역겨움을 잘알수 있다.

이것은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해결하려는 겨레의 통일열기와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당국간 대화를 차단해 남북관계를 영원히 냉전과 대결상태로 몰아가려는 극히 비열한 반통일행위이다.

사실 지난 2일 북이 보내온 남북당국사이의 대화재계에 관한 제의는 참으로 환영할 일이다. 우리 민족은 21세기에 들어선 지금까지 분단의 비극을 겪고 있는 유일한 분단민족이다. 하기에 칠천만겨레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 통일운동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북에서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하자고 제안한데 이어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노동자들의 통일대회와 남북농민들의 통일대축제가 벌어졌고 6.15남북공동선언발표1돌을 계기로 남과 북, 해외 각계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통일대토론회를 진행했다. 특히 8.15광복절을 맞으며 평양에서는 남과 북, 해외의 각계 대표들의 참석하에 2001년 민족통일대축제가 성과리에 거행됐다.

겨레의 통일축제와 여러 통일행사들을 통해서 찾은 경험과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남북사이의 민간급대화와 교류는 물론 당국사이의 대화가 재계돼 통일문제를 논의하고 민족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볼때 북의 대화제의는 정말 시기적절한 것이다. 지금 국민각계에서 북의 대화제의를 적극 환영하면서 기쁨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이회창패당이 당치도 않은 구실을 대며 북을 자극하고 남북대결을 고취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대세의 흐름도 바로 볼줄 모르는 추물들이라는 것을 웅변해준다.

북의 통일대화제의는 민족의 운명, 조국통일에 관한 문제이지 일개 장관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민족의 대의도 모르고 북을 걸고들며 횡설수설하는 것은 저들의 추악상만 더욱 드러낼뿐이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공당의 정치인으로 자처하고 있는지 분노하기에 앞서 수치감이 갈마든다.

8.15광복절을 계기로 평양에서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제와 거기에 참가했던 남측대표들에게 온갖 험담을 다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온 겨레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으며 성대하게 거행된 평양의 통일축전행사에 대해 이회창은 장소문제를 걸고들며 별의별 험담을 다했는가하면 축전 개폐막행사에 참석했던 남측인사들에게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느니 국민내부갈등을 심화시켰다느니 하며 악랄하게 헐뜯었다. 심지어 무슨 작품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의로운 행동을 한 방북대표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처형해야한다고 기염을 토했다.

군사파쇼독재시기부터 남북대결과 민족반역책동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체질화한 이회창이고 보면 그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일에 훼방꾼이 된 것은 달리될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북의 대화제의를 얼토당토않는 말로 반대해 나서고 있는 것도 그 반역적체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회창패당이 북의 성의있는 대화제의를 누구의 구출작전으로 모독하며 정면으로 반대한 것은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민중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반통일세력의 도전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민족통일의 앞길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시점이다. 이회창이 우리 민중에게 선전포고를 한 이상 어찌 더이상 이를 좌시할수 있겠는가. 우리 민중은 이회창패당에게 양보를 하면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 그런 역적에게는 한치의 양보나 타협도 해서는 안되며 오직 무자비한 징벌을 안겨야 한다. 또 이회창에게 붙어 어떤 목적을 이루어보려는 자민련의 정치철새들에게 경고하고 싶다.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민족대의를 저버리고 이회창의 남북대결과 반통일책동에 동조한다면 국민은 그것을 엄격히 계산할 것이고 그 역적행위의 댓가를 톡톡히 받아낼 것이다.

각계 민중은 냉전보수세력의 괴수인 이회창을 민족의 명부에서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야 할 것이다.





30개 영화단체 ≪조선일보 반대 영화인 선언≫

영화인도 ≪안티조선≫ 동참

30개 영화단체 12일 ≪조선반대영화인선언≫ 정지영, 이창동감독, 배우 명계남씨등 합류



영화단체와 영화인, 연극영화학과 대학생 등이 대거 ≪조선일보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2시 남산 감독협회 시사실에서 ≪조선일보 반대를 위한 영화인 선언≫을 갖고 옥천지역의 조선일보 반대운동을 담은 황철민 세종대 교수의 다큐멘터리 ≪옥천전투≫를 상영했다.

이날 선언에는 독립영화협회, 문화학교 서울, 서울영상집단, 푸른영상 등 30여개의 영화관련단체, 정지영, 장윤현, 이창동, 김홍준 등 영화감독, 명계남, 권해효 등 영화배우, 김소영, 이용관, 이용배, 이충직, 황철민 등 교수를 비롯해 평론가 제작자 스텝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대구단편영화제, 인디포럼 작가회의, 인디다큐페스티발, 서울퀴어영화제조직위, 시민영상제 등의 영화제도 합류했다.

이들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권력집단의 곡필과 만행을 규탄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조선일보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왜곡보도로 언론권력을 유지하려는데 앞장서왔다≫고 지적하고 △조선일보 구독 및 기고, 인터뷰 거부 △언론개혁이 굴곡, 좌절되지 않도록 감시 △수구언론을 위해 매명행위를 하는 일부 인사에 대한 경고 △정간법 개정촉구 등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영화의 호황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과도한 광고를 책정하여 신문사에 막대한 자금을 지불하면서 기자들에게 촌지, 향응 등도 제공해 언론의 부패와 곡필을 조장해온 점≫에 대한 모든 영화인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영화인들이 영화문제를 제외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직접 목소리를 내기는 87년 6월항쟁 이후 처음이다. 특히 제작비의 절반이 마케팅에 쓰일 정도로 언론홍보의 비중이 커진 영화계가 특정 언론을 반대하고 나서기는 쉽지 않아 그 파장도 크다.

이와 관련, 한 참여자는 ≪그만큼 조선일보가 주는 폐해가 심각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철민 교수는 이번 선언을 ≪의병궐기≫에 비유하며 ≪나라의 걸림돌이 될 만한 사안에 앞뒤를 따지면 아무 것도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선언에 동조는 하지만 언론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작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장의 사람들은 공개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비영화인인 전국연극영화학과 학생회협의회도 같은 날 ≪조선일보 반대선언≫에 동참했다.

조선일보 회개촉구 노상기도회

≪신문개혁 기독교연대≫ 13일 발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교회와 사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 20여개 단체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정문 광장에서 ≪신문개혁 기독교연대≫를 발족하고 ≪조선일보 회개 촉구 노상기도회≫를 연다.

≪신문개혁 기독교연대≫ 공동의장에는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공동의장인 김광수 목사, 교회와 사회위원회 위원장 문대골 신부 등 5명이 선임됐다. 집행위원장은 전국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정진우 목사가 맡는다.

최종숙 기자 ⓒ 2001 유뉴스
2001-09-15 13:56:00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권력집단의 곡필과 만행을 규탄하며

조선일보 반대 영화인선언

1987년 6월항쟁 이후 우리사회는 비록 형식적이긴 하나 민주화의 일정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 동시에 민주화의 진전을 가로막는 보수 기득층과 그들을 대변하는 보수 일간지들의 현실왜곡에 분노하며 언론개혁 없이는 진정한 민주화가 불가능하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시대적 사명으로 요청되는 언론개혁에 각계 지식인들, 종교인 그리고 대학생 및 여러 사회 단체와 개인들과 함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냈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김대중 정권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물론 언론개혁을 위한 순수한 노력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사결과 발표된 언론사들의 탈세액과 탈세방법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이며 교묘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분노를 느끼며, 이번 기회에 언론들의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권력들은 자신들의 탈세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부여당의 언론탄압이라는 망발과 함께 외신을 조작 인용하는 등 왜곡보도를 일삼으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호도하고자 캐캐묵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정부와 개혁적 인사들을 공격하고, 온겨레의 통일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보도행위로 일관하면서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우리 영화인들은 영화제작에 전념하기 앞서 이 음험하고 이기심으로 가득찬 언론권력에 맞서 싸울 결의를 다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곡필과 악론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국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언론사들에게 우리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 영화인들은 언론권력 신문들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개혁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남과 북, 동과 서, 계층간의 갈등들을 부추키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하게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언론사들의 이런 반역사적이며, 수구적인 작태를 뿌리뽑지 않고는 어떠한 공공의 이익도 달성될 수 없음을 결연한 의지로 확인한다. 특히나 일제시대때부터 계속되어온 자신들의 역사적인 과오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만행에 가까운 왜곡보도로 영원한 언론권력을 유지하려는데 앞장서온 조선일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자 한다.

1. 우리는 조선일보를 구독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진심으로 우려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조선일보 구독거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 우리는 조선일보에 글을 기고하거나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3. 우리는 모처럼 무르익는 언론개혁의 형세에서 정부가 외압이나 정치적 계산에 의해 굴곡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4. 우리는 조선일보가 최근 8.15 방북 행사에서 빚어진 지엽적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자신들에 닥친 비판여론을 무마하려는 책동을 중지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5. 동시에 우리는 수구 기득권 언론을 위해 매명 행위를 하는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자 한다.
6. 왜곡된 언론환경을 바로잡기 위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불공정한 신문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의 적극적인 시행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촉구한다.

덧붙여 한국영화의 호황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과도한 광고비를 책정하여 신문사에 막대한 자금을 지불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모든 영화인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1년 9월

현재 서명자 (가나다 순)

공수창(시나리오 작가), 김동원(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김영진(영화평론가), 김우형(촬영감독), 김윤태(영화감독), 김응택(촬영감독), 김이찬(다큐멘터리 감독), 김소영(영상원 교수), 김현숙(서울산업대 강사), 김홍준(영화감독), 김혜준(영화진흥위원회 정책실장), 권해효(영화배우), 남인영(영화평론가), 명계남(영화배우), 민동현(영화감독), 변영주(영화감독), 심광진(영화감독), 심광현(영상원 원장), 안영진(영화인회의 사무차장), 안해룡(비디오 저널리스트), 양윤모(영화평론가), 염찬희(영화평론가), 유창서(영화인회의 사무국장), 윤인호(영화감독), 윤재우(애니메이션 감독), 원승환(한국독립영화협회 배급팀장), 이두일(EBS PD), 이명인(영화평론가), 이미영(다큐멘터리 감독), 이민용(영화감독), 이상인(영화감독, 용인대 교수), 이승훈(EBS PD), 이영진(씨네 21 기자), 이용관(중앙대학교 교수), 이용배(계원조형예술대학 애니메이션과 교수), 이주영(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차장), 이지상(영화감독), 이창동(영화감독), 이충직(중앙대학교 교수), 이효인(영화평론가), 임창재(영화감독,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원), 장윤현(영화감독), 전승일(애니메이션 감독, 동국대 교수), 정도상(시나리오 작가), 정병각(영화감독), 정지연(영화평론가), 정지영(영화감독), 조범구(영화감독), 조영각(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조종국(조우필름 대표), 조준형(영화인회의 편집실장), 조재홍(다큐멘터리 감독), 주유신(영화평론가), 최인기(프로듀서), 허동우(영화감독), 홍성원(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정책실장), 홍효숙(다큐멘터리 촬영), 황윤(다큐멘터리 감독), 황규덕(영화감독), 황철민(영화감독, 세종대 교수)

≪단체 서명≫

강릉 씨네마떼끄, 노동자영상사업단 희망, 딴짓영화, 대구독립영화협회, 대전독립영화협회, 문화학교 서울, 부산독립영화인협회, 빨간눈사람, 서울영상집단, 스튜디오 꿈틀, 영상기록 다큐인, 영상창작집단 결, 영화제작소 빛살무늬, 영화제작소 CP16R, 영화진흥위원회 노동조합, 온고을 영화터, 전주단편영화협회, 젊은영화, 지하창작집단 파적, 푸른영상, 한국영화과학생협의회

≪영화제≫

대구단편영화제, 인디포럼 작가회의, 인디다큐페스티발, 서울퀴어영화제 조직위원회, 시민영상제

≪공동성명서≫

국가보안법을 청년학생들의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철폐시키자!

시대의 역사속에서 양심을 가진 모든 민중들은 불의에 하나같이 일떠서서 투쟁을 해왔다.

시대의 암흑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안고 도도한 역사의 대하을 만들었던 과정에서 어김없이 양심적고, 진보적인 우리 민중들을 탄압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 다름없는 현실이다.

국가보안법이 어떠한 법인가를 누구나 잘알고 있을 것이다.

일제시대때 애국투사들을 잡아들이려고 만들었던 악랄한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이름만 바꾸어 우리 민중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기간 지배계급들은 민중들의 투쟁을 가로막고 인간의 사상마저 난도질했던 이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쥐고 투쟁하는 우리 민중들을 빨갱이로 딱지를 붙여 탄압을 작행했다.

국가보안법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했던 선배들이 그러하였으며, 또한 아직까지 국가보안법 명분으로 진보세력들을 잡아가두고 있다.

자신이 믿는 진리와 양심을 위해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가 현재 수백명이 넘는다.

또한 노동자와 민중, 청년학생들을 국가보안법의 족쇄를 채워 구속시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조직사건으로 진보적 세력들을 가두고, 투쟁을 와해하려고 하고, 인간의 사상마저 짓밟는 잔악한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몇몇의 요구가 아닌 이땅 민중들의 요구이다.

반세기동안 유지되어온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철폐시켜내고, 이땅의 사상의 자유를 쟁취해내야 한다.

또한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신음하고있는 한총련 청년학생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제 청년학생들의 통큰 단결로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킬것에 대한 결의를 하며, 앞으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의연히 떨쳐 나설 것이다.

2001년 9월 15일
대전충남지역 학생운동 대토론회 참가자 일동
대전연석회의, 21세기진보학생연합, 충청총련, 전대기련 충남지부

설문조사 71.7% 국가보안법 폐지 희망



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민예총)가 이달초 공연, 시각, 출판, 영상 등의 예술인 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22명 가운데 35.5%가 국가보안법 청소년보호법 등 때문에 자기검열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법률로 응답자들의 75.7%가 국가보안법을 지목했고,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로도 69.3%가 역시 국가보안법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또 국가보안법의 구실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사회전반의 이데올로기 통제 수단≫(39.2%), ≪정권 안보 및 정권 유지의 도구≫(52.2%)라고 답했다.

따라서 응답자들의 71.7%가 국가보안법의 전면철폐를 희망했으며,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선 91.1%가 ≪보수세력을 의식한 각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으로 여겼다.

한편 공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제재 이외에 창작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도 2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기독교나 유교 등 특정 종교단체에 의한 창작활동의 방해나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압력과 사법처리 위협, 전화도청 및 감시, 학부모 및 교육청의 압력, 방송 심의규정에 의한 방송금지 등을 제약으로 꼽았다.

기사 제공 - 한겨레
2001-09-14

≪성명≫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관련 성명에 경악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되겠다니!

이 무슨 망발인가? 한나라당의 반민주적인 발상을 규탄한다!

한나라당의 성명서 내용 가운데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내용을 인내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자.

≪체제수호의 최소한의 안전판인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갖가지 양태의 반국가활동을 억제하는 필수불가결한 장치이다.

금번 미국테러사태로 인해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은 분명해졌다.

과거 정치적 악용이 문제된 경우가 있었지만 '91년도 개정으로 그럴 소지는 거의 사라졌다.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냉정하게 분석해보아야 한다.≫



미국의 테러와 국가보안법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랍청년들이 우리를 상대로 성전을 벌이기라도 한다고 했는가? 그 논리비약은 가히 엽기적인 수준이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갖가지 양태의 반국가활동≫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는가? 한나라당처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라고 선동하며 민주인권을 억압하는 행위도 포함하는가?

≪국가보안법이 체제수호의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말은 수구파들의 전유물이 되었다. 무슨 체제 말인가? 극우냉전체제를 수호하겠다는 말 아닌가? 극우냉전 체제는 청산해야할 체제이다. 수호해야할 가치가 눈꼽 만큼도 없는 체제이다.

≪91년 개정으로 정치적 악용문제는 ≪거의 사라졌다≫≫ 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아주 지엽적인 문구 몇 개 수정하고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잖은 추상적인 문구를 삽입한 게 전부이다. 3당 야합에 의해 탄생한 민자당이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법이 현재의 국가보안법이니 오죽하겠는가? 쿠데타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가 만든 법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법이 현행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냉정하게 분석해보아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성명에는 할말을 잃는다.

냉정하게 분석해서 무엇에 쓰겠다는 말인가? 이 성명을 보는 순간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보도연맹원 20 만 여 명을 학살했던 이승만 정권이 떠올랐다. 비상 사태가 나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을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협박이 아닐 수 없다. 이 망언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어떤 법을 유지하라거나 폐지하라고 주장할 자유를 갖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부정하는 한나라당은 이 사회에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는 정당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을 하는 한나라당이야말로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집단으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규정되야하지 않겠는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보안법 위반혐의를 기소해도 법원에서 처벌을 안하니까 수사기관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면서 마녀사냥식 사상공세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을 겨냥했다. 기소해도 무죄선고율이 왜 높은 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법원은 매우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선고율이 높은 것은 법원도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으로 민주 진보인사를 처벌하는 데는 한계를 느끼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을 스스로 드러낸 것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당론도 명확히 정리하지 못했다. 지난 6월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했을 때 한나라당은 수해를 핑계로 국가보안법 관련 토론회를 연기한 이후 한번도 국가보안법에 대해 당론을 정한 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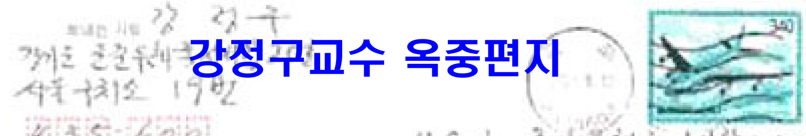
그러던 한나라당이 이번 미국의 테러사건을 계기로 냉전적 반공매카시즘을 강화하는 작업에 발벗고 나섰다. 아마 자민련을 의식해서 한발 더 앞서 나간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동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이다. 평상시 당론도 정하지 못하다가 미국의 테러사건을 이용하여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을 분석하겠다는 성명을 슬그머니 내놓는 한나라당 자신 보다 더 기회주의적인 정치세력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

한나라당은 성명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든지 당을 해체하든지 택일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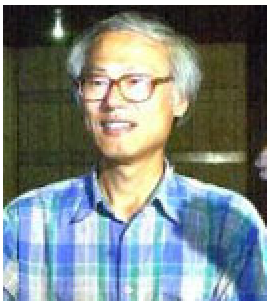
2001. 9. 14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통일행진에 걸림돌이 되는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강정구교수 옥중편지



한국 민족민주인터넷 방송 관계자님.

보내주신 글월은 제가 이곳 서울 구치소에 온지 일주일만에 받아보는 첫 편지이며, 바깥 동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하고, 마음을 다그치게 하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나마 저의 심정을 전해 드리고 만경대 정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죠.

6.15 공동선언 이후 우리는 본격적인 통일 시대를 맞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적 과제는 이제 통일을 이루는데 초점이 보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통일 행로를 제시하고 통일행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96년부터 제기한 2020년 - 30년사이에 도래할 중국과 미국사이의 동북아 신냉전 문제에 있습니다. 과거 미소 냉전시기에 아무리 남과 북이 공조를 하더라도 통일은 불가했으므로 이제 새로이 동북아 신냉전이 생기기 이전에 부분통일이라도 이후의 지구촌에 한반도 통일을 기정사실화 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통일행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바로 통일방안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4단계 통일단계를 설정하고 가장 역점을 둔 것이 연합, 연방단계 입니다. 이것은 6.15공동선언 2항을 현실화하는 것이죠. 아직 남과 북 어느 쪽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이 단계에서는 남쪽의 연합적의 핵심인 군사, 외교, 경제체제유지권을 남북 지역정부가 각기 가지고 북쪽의 연방제 핵심인 민족통일기구인 연방정부를 구성하여 비록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힘은 없지만 통일국가의 외양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연방정부의 수반은 남과 북이 2년씩 순번제로 맡고, 내각은 남북정부의 모든 내각과 필요한 부서를 증설하는 식으로 연방집행기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체육부나 관광부, 문화부 등은 남북 지역정부가 가진 권한을 대폭 연방정부에 이관하여 연방정부가 통합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이라도 통합이 쉽고 가능한 부분은 연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여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유엔에서도 남북이 합치는 곳은 연방정부의 명의로 권한을 행세하도록 하고 엇갈리는 부분은 남북이 각기 권한을 행세하는 것이죠.

이 연합,연방단계는 부분통일로서 지구촌에 한반도의 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물적 토대가 되어 설령 중미간에 신냉전이 도래하더라도 통일을 지속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통일방안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검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북쪽의 고려연방제를 찬양하는 것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통일전진에 걸림돌을 제거하는것은 무엇보다 냉전체제를 해소하는 것이죠. 이에는 평화체제구축과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냉전의식, 냉전문화, 냉전인식 등을 제거하는 것이겠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이고 본격적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주제임에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누구도 다루기를 꺼려하는 주제이죠. 그러나 이를 외면하고서는 평화체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주한미군의 반 평화성과 반 통일성≫이란 주제로 논문을 써 한국사회학회에 발표하고 이번 ≪진보평론≫ 가을호에 실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북한은 주한미군 주둔을 주장했지만 (부시정권 이전) 이와는 상관없이 철저하게 철군주장을 펼쳤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논문이 주된 검찰조사의 대상이 되었죠.

그러나 국보법때문에 학문적 결론을 뒤집는 행위, 곧 학문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짓을 할수는 없죠. 또 냉전인식을 극복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한국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서 한국전쟁, 정통성의 문제는 이곳 남한에서는 완벽한 정답이 있어 이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한완상, 최장집 사건이나 박세길 등에서와 같이 곤혹을 치르거나 옥고를 치를 정도였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두고서는 통일전진을 가로막는 냉전인식을 극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경제와 사회≫ 2000년 겨울호에 ≪한국전쟁과 민족통일 : 전쟁의 통일을 넘어 화해와 평화의 통일로≫라는 주제로 한국전쟁의 통일지향적 인식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검찰조사의 핵심으로 지목 되었으나 저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논문기조는 이미 93년 영변핵위기 당시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위기에 처 했을때 ≪미국과 한국전쟁≫이란 글을 ≪역사비평≫ 93년 여름호에 발표하여 한국전쟁을 새롭게 인식하고 전쟁의 위험을 경고하고 이를 막자는 글에서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94년 조문파동 당시 재향군인회를 비롯해 수십개 단체가 이 논문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학문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 내사를 중단한 글과 거의 유사한 논문을 다시 2001년 동일시대에 사법적 재단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주체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통일전진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좋건 싫건 간에 통일의 반쪽이 신봉하는 사상를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죠. 어쨌던 이런 예민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통일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적 요구를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회피할 생각은 없었기에 제 자신 적극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저의 연로하신 형님께서 TV토론에 나갈때 마다 전화를 하셔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질런지 모르는데 조심하라는 당부를 계속하였으나 저는 걱정하시지 말라고 ≪안심≫시켜드렸으나 너무 일찍 당도한 구금을 당하고 보니 병석에 계시는 형님의 건강이 더욱 악화될까 가슴이 쓰립니다.

또 박원순 변호사등이 다음 이회창 정권이 등장하면 보복 1호가 제가 될 것이라고 농담반 진담반의 이야기를 하곤 해서 저도 만약 이회창 정권이 들어서면 저에게 시련이 닥칠 것이라는 점은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만경대 방명록이 사건화 되면서 예상보다 빨리 김대중정권에서 사법적 심판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검찰조사는 만경대사건은 뒷전이고 주로 위의 건들에 집중되었습니다. 만경대 방문록 사건이 이렇게 사건화 되리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넘겨 정권을 지탱할 수 있었던 중요 요인을 저는 ≪통일시대의 북한학≫ 1부 3장에서 ≪만경대 혁명자 유자녀≫ 학원에서 찾았습니다. 곧 항일투쟁을 전개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특수학교인 만경대학원에서 교육시켜 북한 상층 엘리트를 충원했고 이들 사이의 응집력때문에 식량난과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상층 엘리트간의 권력투쟁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북한 정권이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죠.

그래서 만경대 가기전에 안내원한테 (버스속) 어디에 있고, 언제 세워졌는지 등을 물었고 한번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경대에 도착하여 구경하고 사진찍고 하다 우연히 방명록을 마주치자 여느때 처럼 가볍게 순간적인 발상으로 만경대학원을 떠올리면서 민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기리고 후손에까지 명예와 보상을 한다면 통일일꾼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통일은 빨리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라 자연스럽게 썼죠.

돌이켜보면 언론사주 구속이란 남쪽의 예민한 정세에 대한 냉전세력의 트집잡기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제 자신이 사려깊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또 본의아니게 김대중정부에 부담을 준 것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법처리로 몰아간 언론몰이와 그것에 부화뇌동하는 정치세력과 냉전세력의 행위는 일말의 정당성도 없다고 봅니다. 비록 사법처리를 받는다 해도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처벌이기에 저의 앞으로 학문활동의 방향을 바꾼다든지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떳떳하게 대처하라는 집안 어른들의 당부에, 주위 분들의 격려에, 학생들의 후원에 저는 힘을 얻고, ≪시련≫속에서도 학자로서, 민족주의자로서, 통일이론가와, 일꾼으로서의 주어진 길을 걸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과 학생운동 진로



지난 12일 고려대 경영대 학우강당에서는 근래에 보기드문 토론회가 펼쳐졌다. 4시간에 걸친 ≪민주노동당 참여와 학생운동의 진로≫토론회.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소위 이념과 정견이 다른 학생운동세력이 머리를 맞대고 장장 4시간에 걸쳐 현 시기 광범위한 학생운동세력들의 민주노동당 참여를 통한 정치지형 변화와 학생운동세력간 연대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토론한것.

이들 학생운동세력은 21세기진보학생연합, 다함께(전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한총련 소속 경기동부지역 학생추진위 등이다.

≪민주노동당 참여와 학생운동의 진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토론회는 고려대 총학생회가 기획하고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한총련의 후원으로 진행됐는데, 주최측은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정치지형을 앞두고, 진보정당 참여가 학생운동 전반에 끼치는 영향과 의미를 폭넓고 깊이 있게 분석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토론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우선 전국연합 정대연 정책위원장이 ≪민족민주정당 건설의 필요성과 경로≫에 대해 민주노동당 최규엽 자통위원장이 ≪민주노동당 건설투쟁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하고 학생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민족민주정당건설은 민중들의 요구다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민족민주정당 건설은 민중들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할 정당으로 민족민주운동발전의 요구≫라며 ≪자주, 민주, 통일을 강령으로 하고 각계각층 광범위한 애국적 민주역량을 망라한 대중정당이며,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정당이다≫며 민족민주정당의 상을 주장했다.

또 그는 민족민주정당 건설경로에 대해 ≪전국연합은 먼저 현실에서 활동하는 민주노동당을 제쳐놓고 다른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우선 민주노동당과 협력하고 추후 전국연합과 민주노동당의 조직적 결합에 기초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과 전선체는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민주노동당 최규엽 자통위원장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구조의 변혁을 위해 진보정치세력화가 필요하고 진보정치세력화는 합법정당을 통해 가능하다≫며 ≪통일전선체(각계각층의 서로다른 대중단체가 공통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결성하는 연대단체)는 해방직후 민족민주전선의 사례와 전국연합의 사례에서 보듯 정치적 구심이나 정당조직없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 없다. 정당과 전선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재 민주노동당은 농민, 청년학생, 중소영세상공업자, 양심적 지식인 전문가등의 참여가 대단히 적어 명실공히 각계각층을 망라한 진보정당으로 보기가 어렵다≫며 ≪이들의 참여를 확대해 2002년 서울시장선거등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총련과 함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만들고 싶다

한편, 학생토론에서 ≪다함께≫운영위원 김인식씨는 ≪민주노동당과 학생운동≫이란 주제에서 ≪노동운동과 더불어 학생운동은 민주노동당에서 의미있는 비중을 차지한다. 학생과 노동운동이 결합될때 의미있는 사회변화를 가져온다≫며 ≪ 학생운동내 실질적 세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한총련 지도부부터 당장 입당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상당한 탄력을 얻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다양한 정치경향을 가진 학생운동세력들이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해 ≪정치적 차이가 어떤 것이든 간에 지배 계급에 맞서 효과적으로 저항하려면 상호 공동 목표를 둘러싸고 행동통일을 해야 한다.≫며 ≪정치강령에 100퍼센트 동의해야만 단결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문제를 둘러싼 공동 행동이 아니라 제한된 쟁점을 둘러싼 제한적 연대야말로 연대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 연대를 위해서는 다른 정치 경향들에게 정치적 주장과 행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그는 ≪아직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준비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총련 지도부 등이 가입하면 함께 학생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데올로기적 통일보다 실천에서의 통일로 연대하자

21세기진보학생연합 전략팀장 최현씨는 ≪학생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운동제안≫이란 주제에서 ≪한국 사회 진보운동의 희망은 ≪진보대연합≫이라는 운동의 역사적 계승이다≫며 ≪≪진보대연합≫의 확장과 발전은 진보정당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민주노동당은 다원화되어 가는 진보운동진영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학생운동이 대중 속에서 유리되는 가운데 지나치게 정치운동의 방향으로 나갈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생각하면 학생운동과 정당정치운동 결합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지만 학생운동이 ≪진보진영 정치세력화≫의 길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학생이라는 독자성을 가진 학생운동과 정당운동이 병행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생운동의 의제를 정당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노력과 틀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정부의 교육구조조정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은 진보정당과 학생운동의 전략적 연대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단 반정부 투쟁과 같은 국가주의적 투쟁만으로는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 이는 학생사회내의 ≪학부제및 모집단위 광역화 반대투쟁≫과 당에서의 ≪정부의 교육정책 입안 반대 투쟁≫이 상호 결합할 때 보다 상승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는 ≪정당과 학생운동, 학생운동세력간 이데올로기가 다르더라도 서로의 가치와 조직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특히 학생운동세력들은 이데올로기적인 통일 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천에서의 통일을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건설을 위한 경기동부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이민석씨는 ≪민주노동당이 가져올 학생운동의 변화와, 한총련의 민주노동당 참여 방법≫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참여, 학생운동의 공신력과 학생운동간 연대 높일터

그는 먼저 한총련이 아직 민주노동당가입과 관련된 공식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한총련과 민주노동당 활동을 함께 하는 경기동부지역학생들의 특수한 조건에 기반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혔다.

또 그는 ≪≪민주노동당과 학생운동의 진로≫라는 자못 조심스럽고 도발적인 제목 아래 각기 다른 정견을 가진 학생운동가들이 한 자리에서 토론을 벌일 수 잇다는 것도 꽤 특이하고 상징적인 사건이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 대선 투쟁은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총결집을 통한 민족민주전선과 진보정당이 결합하여 정치적 구심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며 ≪현재 민족민주진영은 그 구심으로 민주노동당을 민중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할 정당으로 위치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학생운동의 민주노동당 참여를 통해 학생운동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먼저 학생대중의 대중적 공신력을 높일 것이다≫ 며 ≪합법적으로 공인 받은 정당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느끼기에 대책없이(?)장외투쟁만 하는 집단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한 정책적 대안생산과 홍보, 사회적으로 지명도 있는 당대표들의 대학내 강연이나 토론 등의 활동이 학생운동의 변화와 성숙한 면모를 보이고 현실감과 신뢰감있는 존재로 다가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는 것

또한 ≪학생운동세력들간 이념과 견해 차이를 뛰어넘어 그간의 분열을 치유하고 단결과 연대를 확대 강화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며 ≪내년 대선을 경과하면 민주노동당은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적 구심으로서만이 아닌 학생운동 연대의 구심으로서 그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총련 분열딛고 민주노동당 참여로 조직의 민주주의 사상운동 활성화시키는 계기 마련

한편, 그는 ≪한총련내 적지 않은 학교와 간부들이 민주노동당 참여 문제를 진지하게 공론화하고 있는 것에 기대가 크지만, 한총련이 현재 정세나 운동흐름과 맞지 않게 행보가 지나치게 느리고, 올해 초 비공식적으로 문제인식이 환기되었으나 깊이 있는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9월을 맞았다≫며

≪물론 한총련이 자주적 대중조직으로 지역별, 학교별 다양한 조건이 있고 정당 참여와 같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같은 시기, 경로를 밟기도 어렵지만 ,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전체적 방향을 설정하고 각 지역별 조건과 실정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민족민주전선과 진보정당 문제라는 중요한 사안에 한총련이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총련내 분열의 결과다≫ 며 ≪민주노동당 참여를 계기로 조직내 운영의 민주주의와 사상운동의 활성화를 더욱 진전시키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통위원장은 ≪학생운동은 사물을 경제적 관계로 보는게 아니라 순수하게 봐서 사회운동가들이 배울것이 많다≫며 ≪오랜만에 학생운동세력들이 헤게모니에 대한 고민을 뛰어넘어 전체 운동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아주 감동적인 토론회 였다≫며 ≪이번 기회로 학생운동세력간 ≪크게 같은것 으로 대동단결≫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민주노동당은 97년 대선 후보로 참여한 국민승리 21 이 모태로 1,2차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원탁회의, 추진위원회 결성, 민주노동당 준비위원회 결성등의 과정을 거쳐 2000년 2월 창당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21개 지역에서 후보를 내고 권영길대표가 경남 창원 을에서 3만6천여표(39%)를 얻은 것을 비롯해 8개 지역에서 두자리수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또 전국 득표율은 1.2%에 불과했지만 출마지역 평균 득표율은 13%였다.

개학을 맞는 청년학생들에게

학생운동가 김모씨의 글 / 구국의 소리 방송 9월 12~14일



새 세기 첫 광복절을 민족의 통일의지를 더욱 뚜렷이 과시한 의의 깊은 축제의 날로 빛내인 감격과 환희로 경향이 끓어번지는 속에 우리 청년학생들은 2학기 개학을 맞이했다.

청년학도들에게 개학은 배움에 대한 이상과 포부를 가슴 부풀게 안겨주며 찾아온다지만 이땅에서의 개학은 청년학생들의 가슴속에 자주민주통일 의지를 더욱 깊게 심어주며 찾아왔다. 새겨보면 이땅에서의 방학은 언제나 그러했지만 특히 이번 방학기간엔 우리 청년학생들로 하여금 공장가와 농어촌 그리고 빈민촌 등지에서 근로대중과 동거동락하며 부조리한 현 사회의 부패상을 더욱 심장으로 절감케 한 방학이였다.

미국에 의해 강요되는 구조조정과 개방농정으로 죽음의 벼랑턱으로 더욱 바싹 내밀리고 있는 민중의 피눈물나는 농활은 우리 청년학생들에게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중이 겪는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임을 재인식하게 했다.

우리 민족을 희생물로 삼아 세계제패야망을 기어이 이루어보려고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매어달리고 이땅의 군부호전세력과 야합하여 북침을 위한 예비전쟁, 시험전쟁인 ≪을지포커스렌즈≫합동군사연습까지 벌여놓은 미국의 책동은 우리 청년학생들에게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주적이고 숙적이며 주한미군철수는 더이상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임을 똑똑히 깨닫게 했다.

이번 방학기간의 나날들은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을 맞아 겨레의 통일기운이 여느때없이 증폭된 격정적인 환경속에서 지나왔다. 통일연대와 7대종단, 민화협이 결집하여 민족통일대토론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힘과 지혜를 합친 것과 같이 각계층 단체들 사이 연대연합기운이 높아가고 통일운동이 개별단체들의 주동적인 집회나 시위와 같은 소극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거족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청년학도들의 젊은 심장을 열망으로 더욱 세차게 두드렸다.

학업과정안에는 방학이 있어도 투쟁에는 휴식기가 있을수 없다는 지향을 안고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에 열과 성을 다 바쳐왔고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도 참가하여 한총련의 위상을 다시금 드높이 과시했다.

통일이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향으로 된 오늘의 현실은 이땅에서 민족분열주의자들의 정체를 더욱 낱낱이 드러내보였다. 6.15공동선언이행에 한사코 제동을 걸고 특히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방북단을 상대로 친북일탈이요, 사법처리요하며 겨레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회창을 수괴로 하는 민족반역세력의 책동은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서도 반통일세력과는 기필코 끝장을 보아야겠다는 결심을 천으로 만으로 배가하게 했다.

이번 방학기간은 우리 청년학생들로 하여금 공안당국의 탄압에 맞서 학생운동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가느냐 아니면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중도타파당하고 마는가를 가름하는 엄혹한 나날이기도 했다.

격류하는 통일대하에 의해 배안으로 밀려나게 된 반통일세력은 그 거세찬 흐름을 멈춰세워보기위해 한총련말살한파를 더욱 세차게 몰아왔다. 그 한파속에 이번 방학기간에만도 부경총련 조국통일위원장 김영배씨 등 얼마나 많은 애국학생들이 한총련활동을 했다는 죄명을 쓰고 감옥으로 끌려갔던가. 수배생활을 강요당하며 개학을 맞은 오늘도 대학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분명 이번 방학기간은 기쁨과 슬픔, 사랑과 분노 등 대립되는 감정세계를 끝없이 새겨주며 우리 청년학생들에게 자주의 귀중함과 민주의 소중함, 통일의 절박함을 피쉽게 깨우쳐준 감명깊은 체험의 나날이였다.

개학을 맞은 청년학생들은 방학기간 더욱 굳세게 다진 정신력을 애국의 의지와 열정으로 분출시켜 자주민주통일운동사에 더욱 뚜렷한 자국을 새여놓아야 할 것이다.

개학을 맞은 오늘 학생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과제가 우리 청년학생들의 두 어깨에 걸머져 있는가.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더욱 확산되는 반미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할 중차대한 과제가 열혈청춘들에게 지워져 있고 민족분열주의자들을 매장하고 6.15공동선언관철에로 각계 민중을 견인해야할 중임이 우리 청년학생들에게 맡겨져 있다.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권보장을 위한 근로대중의 투쟁도 우리 청년학생들이 적극 동참할때 알찬 열매를 맺을수 있으며 학내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학우들이 해야할 일도 참으로 많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투쟁에서 중심고리를 정확히 포착하고 합리적인 운동방식을 구사하며 과학적운동이론, 올바른 전략전술에 기초하여 시대가 부여한 중차대한 과제들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야 한다.

반미자주화는 오늘 우리 청년학생들이 더욱 높이 치켜들고 나가야 할 투쟁의 기치이다. 반미자주화는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이 시대앞에 지닌 중임을 다하기 위한 근본열쇠도 바로 반미자주화투쟁에 있다. 우리 청



년학생들은 반미열풍을 쉼없이 몰아가는 순풍이 되고 반미투쟁의 불길을 끝없이 확산고조시키는 불꽃이 돼야 한다.

현시기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는 반미투쟁들에 중점을 두고 끊기 있게 벌여나가는 것은 더많은 대중을 반미항전에 궐기시키고 투쟁에서 더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는 합리적인 방략이다. 우리 민족의 존엄을 무참히 우롱하는 미국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 보인 한강독극물방류사건, 미군이 이땅에 주둔해 있는 한 민중의 불행과 고통은 가셔질수 없음을 폐부로 절감케 한 매향리폭격사건,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임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미군에 의한 대규모양민학살사건 등 우리 민족의 피를 끓이고 분격을 자아내는 용납못할 범죄행위문제들을 더 크게 정치쟁점화시켜 반미로 향한 민심의 불길을 전민반미항전의 거족적열풍으로 몰아가야 한다.

주한미군철수운동은 현시기 반미투쟁에서 가장 중핵적인 문제이다. 부시행정부가 대북강경정책에 매여달리는 것도, 6.15공동선언을 파탄시키고 한반도의 정세를 다시금 냉전관계로 되몰아가려고 획책하는 것도 주한미군주둔의 명분을 마련하여 그것을 21세기 일급 세계지배전략실현의 첨병으로 써먹으려는 음흉하고도 위험한 기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한미군철수를 떠나 북미관계개선에 대해 말할수 없고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도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더욱이 부시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작전력과 전투태세를 강화하고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광분하면서 제2의 북침전쟁과 세계제패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현실은 주한미군철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됨을 뚜렷이 실증해 준다.

청년학생들은 주한미군철수가 갖는 이같은 중요성을 똑바로 알고 이 운동을 힘있게 벌여나가기 위한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천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야 한다.

성명과 호소문발표, 구호제시와 같은 선전선동수단을 총 발동하고 집회, 시위 등 여러 형식의 투쟁을 쉼없이 벌여 미국의 세계지배정책과 민족분열책동을 단호히 저지분쇄해야한다.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실천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야 한다.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을 계기로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겨레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통일에 대한 신심과 낙관을 북돋아주는 감격적인 일들이 남과 북, 해외에서 매일 매시각 펼쳐지고 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같은 사회적흐름을 더욱 고조시켜 통일의 직행로인 6.15공동선언에 받들려 통일호열차가 초고속으로 내닫게 하는 선풍이 되고 버팀목이 돼야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거는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에 경각심을 높이고 사사건건 분쇄해버려야 한다. 특히 이회창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정치무대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야한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백서발간과 고발장발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극악한 사대매국노이고 민족분열주의자인 이회창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냄으로써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열망하는 각계 민중모두가 반이회창투쟁에 적극 동참해 나서도록 해야한다.

각계층 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것은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더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이땅에서 일어난 가장 획기적인 변화중의 하나는 각계층 단체들이 정파와 소속, 지역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결집하는 것이 시대적추이로 되고 있는 사실이다.

≪6.15공동선언에 동의하는 단체와는 언제나 손잡고 나갈 것이다≫ 이것은 오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수많은 운동단체들의 공동의 구호로 되고 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같은 분위기를 효과있게 이용하여 각계층 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각계층 단체들과의 공동연대투쟁들을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벌여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들이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한편 생존권에 대한 근로대중의 투쟁에도 적극 동참하여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참 세상을 앞당겨오고 학생운동에 대한 지지기반도 굳건히 다지며 일거삼득, 일거사득해야 한다.

학생운동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야 한다. 조직을 떠나 학생운동발전에 대해 논하는 것은 뿌리없는 나무의 성장을 바라는 것과 같다. 특히 공안당국의 학생운동탄압한파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오늘 우리 청년학생들은 더더욱 학생운동조직에 굳게 뭉치고 학생운동조직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운동조직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핵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11월부터 진행되는 각 대학의 2002학년도 총학생회장선거를 계기로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심이 높고 대중의 신망을 받는 학우들을 학생운동회층 간부로 선출하여 한총련을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웁고 불패의 전투력으로 굳건한 애국의 전위조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생운동조직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산 조직으로 만드는 것은 또한 중요하다. 학생운동가들은 독선, 독소와 같은 관료주의적인 사업작풍을 뿌리빼고 학생대중에 공감하는 투쟁방법을 구사하여 백만학우가 조직에서 진행하는 모든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서도록 해야 한다.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과 같은 민족의 사활과 직결된 초미의 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 한편 학내문제해결에도 각별한 주의를 돌려 한총련이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학생운동을 말살하려는 공안당국의 탄압책동에 움츠려 들 것이 아니라 주동적인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철회와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의 공세로 단호히 분쇄해 버려야 한다.

유동적인 정세를 예리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시대와 겨레앞에 지닌 청춘의 사명감으로 심장을 불태울때 우리 청년학생들이 점령하지 못할 고지가 없고 헤치지 못할 시련과 난관이란 없다.

애국애족의 숭고한 지향을 안고 민족의 운명을 앞장에서 개척해 나가는 새 세기 청년학생들의 앞장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해야한다

구국의 소리 방송 9월 9~10일

안녕하십니까.

오늘 통일을 갈구하는 온 겨레앞에는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하는 문제가 절박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왜 통일의 주체역량을 강화해야하며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필요성과 과제측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의 주체역량을 강화해야할 이유는 우리 나라 통일문제의 성격에서 비롯됩니다. 아시다시피 조국통일문제는 외세를 몰아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재천명하는 우리 민족 내부문제입니다. 때문에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주체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고 그 위력은 민족대단결에 있습니다.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면 우리 민족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해야합니다.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오늘 안팎의 분열주의세력들의 반통일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노골화되는 것과 관련해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은 세계가 환영하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 이행을 백방으로 방해하면서 한반도에 또다시 냉전기류를 몰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용무기축감, 미사일문제, 강경정책에 대하여 운운하며 이북을 압살하려는 책동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남북관계를 6.15공동선언이전시대로 되돌려세우려고 분별없이 날뛰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이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며 그로 인해 미국에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다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 궤변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간섭책동으로 하여 오늘 남북사이에 진행되던 여러 갈래의 대화들이 중단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한반도에는 또다시 전쟁의 검은 구름이 감돌고 있습니다.

반통일세력은 민족내부에도 있습니다. 지금 이남의 보수우익세력들은 미국의 이러한 침략책동에 추종하여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방해하고 안보니, 공조니 하면서 외세의존과 남북대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남에서는 지금도 동족을 주적이라고 하면서 통일애국단체들과 인사들을 이적으로 몰아 철창으로 끌어가고 있는데요. 광복절을 기하여 얼마전 평양에서 열린 8.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고 돌아온 남측 대표단성원 여러명을 연행, 사법처리하려 하고 있는 것은 그 한 사례입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같이 현 정세는 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내외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분쇄하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의 이익을 앞세우며 그에 기초해서 온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해야 합니다. 조국통일이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나서고 있는 오늘 어느 계급이나 계층도 자기의 이해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보다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남북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해도 우리 민족의 공통성보다 더 클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민족공통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에 내세우고 조국통일을 지향해 나선다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성원들은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을 이념적기초로 하여 각이한 계급적이해관계와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단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 겨레가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가지고 사대주의를 반대배격해야합니다.

중요한 것은 또한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전개돼야 합니다. 공존은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같이 살아나가며 공영은 남과 북이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가며 공리는 남과 북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공존, 공영, 공리의 원칙은 남과 북, 해외의 전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해 나가는데서 견지해야할 단결의 기본원칙입니다. 말하자면 단결의 자 막대기라 할수 있습니다. 민족대단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이 자 막대기로 재보고 그에 맞으면 장려하고 맞지 않으면 부정하여 대단결을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남과 북, 해외의 전민족이 연대연합을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애국세력이 공동보조, 공동협조를 강화하여 주장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연합하여 거족적인 공동투쟁을 벌여나감으로써만이 온갖 장애요소들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제거하고 통일을 앞당길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정당, 단체와 각계층의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조직적인 연합은 단결의 위력을 현실화하고 배가하는 기본방도입니다. 단결은 조직화를 통하여 현실화되며 조직화는 단결의 위력을 확고히 담보합니다. 지금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남과 북, 해외의 연대연합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하는데서 고무적인 형태라 말할수 있습니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을 위한 연대연합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온 민족이 조직적으로 연합하자면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민족대통일전선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통일전선체는 나라의 통일성취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다같이 다원적으로 망라될수 있고 그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수 있는 조직으로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해서 통일을 앞당길데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8.15민족통일대축전 개폐막식참가 죄로 될수 없다

구국의 소리 방송 9월 12~13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최근 공안당국이 평양에서 열렸던 8.15민족통일대축전 남측참가자들의 활동을 범죄시하면서 탄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엔 이와 관련해서 얘길 나눠봤으면 해서 모셨습니다. 그럼 먼저 당국이 8.15민족통일대축전 참가자들의 활동을 문제시하고 있는 점들이 뭐냐 하는 것부터 말씀해주실까요.

김현규 : 그러죠. 다 아시겠지만 최근 공안당국은 평양에서 열린 8.15민족통일대축전참가자들인 범민련부의장 김규철씨를 비롯해서 범민련 관계자들과 동국대학교 강정구교수 등 7명에 대해서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에 걸어서 구속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양축전행사에 참가한 남측대표단 가운데서 일부 인사들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진행된 개폐막식행사에 참석했다는 것과 통일연대에 합류했다가 **김일성**주석님의 생가를 방문하고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겼다는 구실을 찾아 이를 범죄시하고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그들을 구속했던 겁니다.

사회자 : 그런데 말이죠. 오늘 남과 북, 해외에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좋은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는 때에 당국이 자행한 이같은 범죄행위는 결코 용납될수 없잖아요.

김현규 : 그렇죠. 당국의 탄압행위는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방해하는 책동으로써 절대로 정당화될수 없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말하면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자마자 우리 민중은 물론 세계 진보적인류가 이를적극 지지찬동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나라의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마련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실제로 6.15공동선언의 당위성과 활력으로 해서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에 민족분열 50여년동안 일찍이 없었던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 획기적인 진전이 마련됐던 겁니다.

사회자 : 그리고 보면 8.15민족통일대축전도 6.15공동선언의 당위성과 활력에 의해서 마련된 뜻깊은 통일대회합이였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김현규 : 네, 평양에서 열린 8.15통일대축전은 한마디로 말해서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한 민족대회합이였다 이렇게 말할수 있죠. 그러기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대표들이 평양에 모여 새 세기의 가까운 앞날에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결의와 의지를 표명했던 겁니다. 분단 50여년만에 이처럼 많은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합을 가지기는 처음입니다. 이건 우리 칠천만겨레가 통일을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회자 : 그런데 당국은 우리 민족의 이같은 통일의지, 통일열망을 외면하고 방북인사들 중 일부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진행된 개폐막행사에 참가한 걸 문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범죄시될 이유가 없잖아요?

김현규 : 그렇죠. 범죄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찬양해야 할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칠천만겨레의 통일염원이 반영돼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진행된 8.15민족통일대축전 개폐막행사에 참가한 각 대표들의 행동은 바로 그들의 통일열망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아시다시피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그리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라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는 바로 이같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기필코 이룩하려는 남과 북, 해외 온 겨레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새 세기 첫해의 광복절에 이처럼 뜻깊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남과 북, 해외정당단체대표들이 민족통일대축전행사를 진행한 것은 참으로 커다란 행사이고 민족사에 기록될 의의있는 통일대회합이라고 봅니다. 이런 뜻깊은 장소에서 열린 통일축전행사에 참가한 것은 민족구성원으로써 마땅히 크나큰 자긍심을 가져야 할 일이지 결코 문제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만큼 그들의 행동은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찬양의 대상으로 되는 겁니다.

사회자 : 그리고 보면 그들이 더욱이는 구속대상이 될수 없다 그 말씀인데요. 어떻습니까. 통일연대의 한 인사가 만경대생가를 방문하고 남긴 글이 또한 문제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현규 : 네,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글 내용인즉 동국대학교 강정구교수가 만경대생가를 방문하고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고 쓴 글입니다. 이건 자기의 통일애국의 심정을 그대로 피력한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혐의에 걸어 그를 구속하고 있으니 이런 횡포무도한 행위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광복직후 김구씨가 만경대를 방문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만경대를 방문하고서는 격정에 넘쳐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칭송의 글을 수없이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느 나라에 가서도 그들이 남긴 글을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 : 그러니까 8.15민족통일대축전행사 참가자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탄압행위는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하고 민족의 자주통일을 반대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정체를 스스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은 것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당국의 무분별한 탄압책동은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차단하고 겨레의 민족자주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용납할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만큼 공안당국의 범죄적 탄압책동을 허용하고 반통일분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6.15공동선언이행은 고사하고 조국통일도 이룩할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자 : 네, 옳은 말씀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남북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하고 조국통일을 반대하는 반통일분자들과의 타협없는 투쟁을 과감하게 벌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계층 민중은 공안당국의 범죄적탄압책동을 분쇄하고 부당하게 구속된 각계 인사들을 석방하며 조국의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할 걸 믿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미군철수는 자주통일의 전제

구국의 소리 방송 9월 12~14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최근 부시미행정부의 무모한 대북정책과 전쟁책동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앞길에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경향각지에서 더욱 세차게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미군철수는 자주통일의 전제라는데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선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왜 미군철수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윤정원 : 이땅에서의 미군철수가 자주통일의 전제로 되는 것은 미군의 이남강점이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 조국통일을 방해하며 이땅의 군사적대결과 전쟁을 몰아오는 기본요인으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 자신의 문제이고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서 민족의 요구에 따라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자체의 힘으로 성취해야하는 민족위업인 것이죠.

사회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부시정권은 시대착오적인 대북강경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을 짓밟고 통일의 앞길을 한사코 방해해 나서고 있습니다.

윤정원 :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있지도 않은 북의 미사일위협을 떠들다 못해 이제는 북의 상용무력의 위협까지 들고 나왔어요. 이거는 저들의 침략무력의 이남강점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죠. 현실적으로 북이 미국을 위협하는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 나라의 절반땅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북을 항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거 이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사회자 : 그렇죠. 주한미군은 오늘날 이남땅에 남아 있을 구실도 명분도 없습니다. 냉전종식으로 공산주의위협을 막는다고 하던 논거도 통하지 않게 됐죠. 더욱이 우리 민족끼리 통일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확약한 6.15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 통일에 대한 지향이 날로 높아가는 오늘의 현실속에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미국은 주한미군에 현대적군사장비들을 제공하고 북침을 노리는 전쟁연습을 공공연히 벌여놓고 있고 이남의 반통일세력들을 반북대결에로 부추기고 있는데요. 주한미군으로해서 한반도는 세계에서 전쟁위험이 가장 큰 열점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처럼 미국의 대한반도전략을 현지에서 집행하면서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때문에 지금 각계 민중들속에서는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땅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려는건 통일을 갈구하는 온 민족의 확고한 의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원 : 그렇죠. 최근까지 통일애국운동에서 전개한 반미투쟁은 소파폐지운동, 미군범죄근절운동, 미군기지되찾기운동 등 각 방면으로 폭넓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투쟁들은 기본과녁을 미군철수에 맞추고 있다는걸 알수 있어요. 예컨데 ≪모든 악의 근원, 불행의 근원, 범죄의 근원, 학살자 주한미군을 즉각 철수시키라≫, ≪자주통일의 방해자 미군은 이땅에서 손을 떼라≫, ≪이땅에서 미군을 그대로 두고선 평화도 통일도 없다≫, ≪양키는 제 소굴로 돌아가라≫ 등의 투쟁구호가 보여주듯이 이땅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이남 민중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하겠죠.

사회자 : 얼마전 한 통일문제연구단체가 미군철수와 관련해서 진행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남민중의 절대다수인 82.7%가 미군의 조속한 철수를 원했습니다. 우리 이남민중은 우리 민족의 분단사를 조작한 주한미군이야말로 자주통일의 방해자, 평화통일의 방해자, 통일의 암적존재라는걸 생활체험속에서 똑똑히 알게 된거라고 하겠습니다.

윤정원 : 정말 이땅에서 미군철수는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되죠.

사회자 : 그렇죠. 현시대는 자주시대입니다. 미군을 철수시키고 자주통일을 성취하려는건 시대의 요구이며 우리 민족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그런만큼 각계 민중은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분기해 나서야 할 것이고 미국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이땅에서 주한미군을 하루빨리 철수시켜야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1주년 기념≫ 이북 영화 상영회에 초대합니다

민주노동당



8월15일 평양에서는 남 과 북 해외의 동포들의 분단 57년만에 뜨거운 포옹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장면 뒤에는 수구보수세력들의 마녀사냥으로 인하여 7분의 선생님들이 옥고를 치르시는 가슴아픈 모습도 있었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를 미워하고 싸워야하는 적이 아닙니다. 반만년을 같이 살아왔고 앞으로 억만년을 같이 살아야 하는 한민족 , 한겨레인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한다면 한민족도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이북 바로 알기 차원으로 영화 상영회를 시작한지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북 바로 알기 1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초청하여 1주년기념 특별 영화를 상영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상영일시 : 9월18일(화) 오후7시 (매달 셋째주 화요일) 시간엄수 정각에 시작합니다.

– 상영장소 : 광화문 우체국6층 북한 자료 센타 시청각실 (5호선 광화문에서 하차 동아일보 방향으로 나오시면 광화문 우체국이 보이고, 우체국 6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 상영작품 : ≪무제 1≫ 1주년 기념 특별 작품입니다.

– 관람료 : 무료

– 문의 : 민주노동당 자주통일국장 이승헌 (019-369-7519)

강정구교수 구속에 관한 공청회

강정구교수 석방대책위



9월 20일(목)에 ≪강정구 교수 구속에 관한 공청회≫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공청회 제목

≪민족대결적인 여론 조작과 강정구 교수 구속에 관한≫ 공청회

2. 취지

1) 강정구 교수의 만경대 방명록을 돌출행동으로 몰아가는 냉전수구적 여론과 그 허구성을 밝힌다

2) 냉전수구세력들이 강정구 교수를 제물로 삼아 남북의 화해와 통일 노력을 후퇴시키고 민간통일운동을 훼손하려는데 대해서 그 반통일성과 시대착오성을 명확히 한다.

3) 국가보안법이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조차 가로막고 있는 조건에서 최소한의 통일운동도 가능하지않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철폐가 시급함을 알린다.

3.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01년 9월 20일(목)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2) 장소 : 동국대 문화관 제1 세미나실

4. 주최 및 문의 : 강정구 교수 석방대책위(712-8443)

5. 발제 및 토론자

1) 발제 및 발제자(각 15분)

① 2001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의 역사적 의미(허영구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② 여론 왜곡문제와 그 반통일성(정운현 대한매일 기자)

③ 강정구 교수와 학문의 자유, 국가보안법(조현연 성공회대 교수)

2) 토론자(토론 각 10분)

김동균 변호사, 고영대 자통협 집행위원장, 박준형 범남본 연대사업국장, 김홍민 동국대 총학생회장

2001.09.18.



≪민족 경상대≫ 한총련 합법화 투쟁의 닻이 올랐다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경상대 수배자 모임을 결성하며

백만의 살아있는 심장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97년 김영삼 정권에 의한 한총련 해체음모, 살인탄압 속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한총련을 지켜낸 ≪한총련전사 신념의 강자 김준배≫ 그를 백만의 가슴에 묻은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열사의 죽음으로 백만의 자주적 대중조직 한총련은 전국의 각 학원과 투쟁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깃발을 휘날리고 있지만, 지난 5년간 백만 청춘의 삶은 이적단체 규정으로 인해 햇볕 한 줌 들어오지 않는 동굴속에서의 생활이었으며,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해만도 500여명이 넘는 한총련 대의원이 수배 또는 연행, 구속이 되었고, 그 수가 벌써 1000여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대학교만 하더라도 지난 5년간 이적단체 규정으로 연행, 구속된 동지들이 33명, 수배자가 7명이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9기 한총련은 공안 당국에서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의 규정 근거라 이야기하는 한총련 강령중 연방제 통일을 615공동 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바꾸었으며, 김대중 정권 이후 한총련 주최로한번도 폭력시위를 주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기 한총련에 대해 친북성, 폭력성의 근거로 이적단체로 규정, 연일 한총련 탈퇴를 위한 회유와 협박, 그리고 심지어는 학내에까지 들어와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연행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학생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협박과 회유의 한총련 탈퇴 공작에 시달리며, 공안기관의 눈을 피하며 수배생활을, 심지어는 연행, 구속까지 당하며 청춘의 아름다운 시절을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 홀로 보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 공안기관의 눈과 귀를 피해 항상 긴장하며 생활하던 우리 수배자들의 모습, 탈퇴공작과 수배생활 속에서 집안이 풍지박살 지경에 이르러 부모님 형제들과 눈 한번 제대로 맞추지 못한 우리들,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어가는 고통일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총련 대의원을 결의하고 수배를 결의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2만 개척 학우들과 백만 청춘의 눈빛이었으며.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갈망하며 투쟁하는 4천만 민중과 7천만 우리 겨레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어떠한 고통은 참고 인내 할 수 있으나, 학생회장으로 대중일꾼으로 생활하는 우리들의 발목을 쇠사슬로 칭칭 감아버리고, 대중들과 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술 한잔 진하게 마시며 서로의 고민한번 제대로 이야기 할 수 없게 만들며, 너무나도 대중적이며 합법적인 우리의 학생회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과 대의원들에 대한 수배조처에 대해 격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주저앉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전국의 한총련 백만학도 여러분!

이제는 지난 5년 동안의 이적단체라는 길고 어두운 동굴 생활을 마감해야겠습니다.

공안 당국은 백만 청춘을 어둡고 습기 찬 동굴에 밀어 넣고 동굴입구를 시멘트로 막아 버렸지만, 우리에게는 이 길고 어두운 동굴을 나가려는 확고한 의지와 결심이 있기에 전혀 동요하거나 주저앉자 있지않습니다.

이적단체 규정의 길고 어두운 동굴에서 벗어나려면 연장과 횃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굴 밖에서 연장과 횃불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 경상대 수배자들의 투쟁의지가 어두운 동굴의 입구를 찾을 수 있는 횃불이 되고, 우리의 모범적 투쟁이 입구를 허물 수 있는 해머와 망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만 청춘의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이적단체 규정의 동굴을 허물어 버리고 7천만 겨레의 심장속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경상대학교 정치수배자 모임 사업계획

1. 목적

한총련 이적 규정철회!

정치수배 전면 해제!

2. 활동방향

민족 경대에서 한총련 합법화 투쟁을 책임성 있게 밀고 나간다

전체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총련 합법화 투쟁에 복무한다.

수배자 가족들과 적극적 연대를 실현한다.

서부경남지역 타 대학, 시민단체와 적극 연대한다.

일상적, 지속적이며 다양한 선전 의식화 사업과 창조적인 대중활동으로 학내 및 지역 정치여론형성에 기여한다.

수배자들의 생활과 활동에서 나서는 문제를 총화 대책 수립 (경제,집안,건강,보위,등)

대중운동의 모범을 창출한다.

3. 활동계획
① 일상 선전사업
일주일 1회 수기형식으로 글 적기 – 화장실 유인물, 등 각종 선전물에 참조
각종 언론사 투고, 통신사업
유인물배포 (자유) –시기별 제작(예–한가위 전)
통신 소식지 배포
각종 언론사 투고(수배자, 가족)
통신사업

② 마당 사업
◎ 매주 중 하루를 정해 학내 거점을 형성 지속적인 마당 사업 진행 (민가협 목요 집회처럼)
㉠ 일시 : 매주 금요일 12시–1시까지 도서관 앞에서 진행
㉡ 내용 : 이적규정철회 수배해제의 내용으로 하되 (시기별 국보철내용 결합) 형식은 다양하게 진행
※"매주 금요일 12부터 1시까지는 항상 그 장소에는 수배자들이 투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누구에게나 들 수 있도록
㉢ 형식 : 집회식, 작은 문화제, 퍼포먼스,등
– 집회식 일 때 – 섭외대상에 따라(가족, 과회장, 초등학교 친구, 교수님, 지역단체 어르신, 국보법피해자, 등과 함께 하는 자리)
– 작은 문화제 일 때 – 노래패 노래공연, 시낭송, 등(수배자도 가능)
– 퍼포먼스– 감옥, 연날리기, 송편빚기, 물풍선 던지기, 등/ 이적규정, 수배의 고통을 형상화함,
창조적 고민으로 진행
㉣ 학우들 참여 방도– 기본은 지속적으로 청와대 항의엽서 보내기 (엽서 제작)
스티커 붙이기, 풍선 불기, 종이학 접기, 등
㉤주변선전
제목 플랑(가능하면 대형으로 계속 가능하게)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경상대학교 정치수배자 금요 마당≫
– 우드락으로 깔끔한 선전물 준비
– 수배자 사진 및 약력 전시
– 이적규정 철회(부당성)
– 정치수배 해제(수배의 고통과 현실)
– 가판대 설치–항의엽서 및 보라 빛 우체통 설치 (항의엽서 보내기 용)
③ 특별사업
▷ 추석맞이 인사 사업
≪ 수배자와 가족들이 미리 만드는 2001한가위≫
㉠ 의의
– 이적규정으로 인한 수배자들의 생활에 고통, 안타까움을 정치 여론화하는 자리
– 수배자와 가족들이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함께 하지 못함을 위로하는 자리
(향후 수배자 가족 모임의 시발점)
– 지역 단체 어르신들도 초청해서 직접 찾아기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한가위 인사를
드리는 자리 (향후 지역 대책위나 연대투쟁의 밑거름이 됨)
㉡ 일시 : 9월 21일 늦은 3시
㉢ 장소 : 사회과학대 학생회(가안)
㉣ 식순
1부
– 노래공연과 시 낭독
– 부모님과 어르신께 드리는 글 낭독
– 감사의 선물과 큰절 올리기
– 부모님 및 어르신 말씀
2부
– 합동 차례 지내기
– 다과 및 뒷풀이
㉤ 준비사항
– 단체어르신 및 교수님 (전화 및 초청장 발송, 직접 찾아뵙기)
– 부모님 및 가족 (각자 연락)
– 언론사–학내 및 학외 모두 다 (전화 및 팩스, 보도 요청서 발송)
– 섭외– 인사말, 노래패, 시, 부모님께 올리는 글, 장소
– 선전– 제목, 감사의 인사, 행사장 안내 선전
– 실무– 선물, 다과 및 차례상(차례 필요한 모든 것)
▷ ≪수배자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 창살 없는 감옥에서 띄우는 편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정치수배해제의 내용을 대중적으로 알려내고 자리
☞ 시기가 고민 –대동제 혹은 하반기 투쟁일정 속에서(문화국과 상의 후 제출)

4. 조직체계 정하기
조직체계 (원칙–전 성원의 간부화)
– 모임대표 :
– 언론 :
– 통신 :
– 선전담당 :
– 정책담당 :
– 대외협력 담당 :
– 가족모임 :

5. 수배자 모임 내용(매주 진행)
– 안건 –
① 생활과 활동 총화
– 건강
– 집안
– 잠자리
– 호주머니 사정
– 보안
나서는 문제 대책 수립
② 사업계획 토론
③ 다음모임 일시 및 안건 공유
④ 뒷풀이
– 운동
– 저녁식사
– 영화보기



제1회 안티조선 문화제

9.19~21 연세대 교정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서 제 1회 안티조선 문화제가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대학생들이 펼쳐온 안티조선 운동을 종합해 보며, 앞으로 더욱 힘있게 내딛을 언론 개혁의 한 걸음이 되어줄 이번 안티조선 문화제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연회≫

9월 19일 오후 6시 : 정지환(말지 기자)님의 ≪조선일보의 어제와 오늘≫
9월 20일 오후 6시 : 김동민(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 대표)님의 ≪조선일보 반대운동의 당위≫
9월 21일 오후 3시 : 오한흥(옥천 조선바보 대표)님의 ≪안티조선과 옥천전투≫

≪다큐멘터리 상영전≫

행사 기간 내내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로비에서는 MBC 미디어 비평의 영상물과 ≪옥천전투≫ 상영전이 벌어집니다.

≪거리 선전전≫

행사 기간 내내 다양한 안티조선 선전전이 백양로 거리에서 펼쳐집니다.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 창립 1주년 기념행사≫

9월 20일은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가 첫돌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 기념행사가 문화제와 함께 열립니다.

≪문화 공연≫

행사의 마지막날인 9월 21일에는 이번 안티조선 문화제의 절정! 문화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7시부터 연세대학교 공대 옆마당에서 벌어지는 이 문화 공연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조선일보의 문제를 다시금 되새기며, 힘찬 투쟁을 한마당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자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더불어 ≪전국 대학생 조선일보 반대 모임≫의 출범식을 겸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생 조반모≫로서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하여 저희 ≪제 1회 안티조선 문화제 공동 기획단≫은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경험도 적고, 미숙한 점이 많은 저희 대학생들에게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과 후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모습

삼복의 뜨거운 무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의 첫달 9월에 들어서니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 생각납니다
신념과 의지의 화신들
그분들이 북으로 가신지도 어느덧 1년

한해 전 이날에 있었던 선생님들과의 뜻깊은 송별식
그날로부터 1년세월 흘렀다고
이별의 아쉬움보다 기쁨과 환희에 넘치던 모습들
통일을 이루고 다시 만납시다는 **이고 열성적인 그 목소리
오늘도 잊을수가 없습니다

매일처럼 TV에 방영되는 선생님들의 ** 새로운 소식
여기에 기나긴 감옥살이 수십여년을
행복의 백년천년으로 바꾸어주시려는
하늘같은 사랑의 손길이 닿아 있어
눈물속에 감격속에 우리 봅니다

가슴마다 번쩍이는 조국통일상
총각할아버지들의 특색있는 결혼식상
떠들썩 이어지는 새집들이 경사
그들의 **이고 꽉찬 방들에서 날마다 울려퍼지는
기쁨의 노래소리 즐거운 웃음소리

꽃다발에 묻힌 저 노인이 0.75평 죽음의 콘크리트상자속
그 이름없던 수인이 맞는 겁니까
열정에 넘쳐 말하는 저분이 정녕
휠체어에 실려가던
비전향장기수선생님입니까

굽었던 허리는 언제 펴졌으며
눈가에 고통으로 패였던 주름살은 그 어디 갔습니까
새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처음보는 얼굴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가슴부풀게 하는 행복상입니다

지옥의 한끝에서 끝끝내 찾아오시어
사랑의 한품에 뜨겁게 안아주시더니
하늘땅을 꽉 채우는 숭고한 동지애로
그들의 모습을 빛내주셨습니다

김정일장군님의 품에 안기어
백발청춘으로 빛나는 그 모습들은
행복의 절정에 아득히 올라선
태양의 별들이 영생하는 모습입니다
누리에 펼쳐지는 뜨거운 화폭입니다

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 장군님 펼치실 통일강성대국에서
이남 민중도 길이 복락할 내일을
북송된 비전향장기수선생님들 그들의 모습에서
거울처럼 비껴있는 내일의 행복을 봅니다

최학승 / 구국의 소리 방송 9월 2~3일



주체 90, 9월 10일

최근 반통일분자 이회창을 제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이회창퇴진운동에 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정원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원 :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의 퇴진을 촉구하는 운동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이회창퇴진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소속 학생 100여명은 8일 오후 전남대학교 후문 광장에서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정계은퇴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는데요. 학생들은 대회에서 칠천만겨레가 6.15남북공동선언실현에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 이회창은 민심과 대세에 역행하며 공동선언의 이행을 반대해 남북간에 냉전기류를 조성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이회창은 대북협력사업을 퍼주기라고 매도하며 남북관계를 되돌려세우는가 하면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책과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에 편성하는 등 친미사대주의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역사상 최대의 언론말살사건인 민족일보사건의 담당판사가 바로 이회창인 것은 외세수구언론의 충실한 **에서 기인하고 있다며 친일사대의 후손이자 통일을 **하는 이회창을 정계에서 은퇴시키고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회를 마친 학생들은 한나라당 광주시지부앞에서 이회창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길가던 시민들은 시위를 벌이는 학생들에게 손을 들어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7일 한총련 소속 대학생 10여명은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 모여 앞으로 이회창의 정치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들은 반통일분자 이회창이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회창정치활동대학생감시단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감시단은 이회창바로보기운동과 이회창에 대한 ***운동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3일에는 서울대학교 학생 40여명이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앞에서 당사현관유리창과 현판에 계란과 페인트봉투를 던지면서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대학생들은 ≪반통일, 반민족세력 한나라당은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당사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처럼 대학생들이 반통일분자 이회창의 퇴진과 반국민적, 반통일집단인 한나라당의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 **대통령감투를 써보려는 이회창과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만을 일삼으면서 통일을 반대하는 한나라당패거리들에 대한 당연한 징벌이라 하겠습니다.

각계 민중은 이회창과 한나라당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광복직전 경성방송국에 근무하며 일제의 패전소식을 알리고 광복의 희망을 전해준 방송인들의 독립운동인 단파방송연락운동 기념식이 한국방송인 동우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오후 KBS본관 물망대앞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최대의 노동조합연합조직인 국제노조네트워크는 지난 6일 한국의 노동자인권상황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정부에 대해 구속중인 노조지도자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53돌경축 재일본조선인 기념대회가 8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에 즈음해 9일 이북의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과 각계층 민중들, ≪한민전≫평양대표부 대표가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53돌에 즈음해 9일 인민군장병들과 각지 인민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53돌에 즈음해 이북의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과 인민군장병들, 근로자들이 9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참관해 화환을 진정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주년에 즈음해 러시아연방 푸틴대통령이 축전을 드렸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에 즈음해 지난 6일 캄보디아왕궁 담당 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왕궁성대표단이 노로돔 시하누크국왕의 지시에 따라 자국 주재 이북대사관을 축하방문했습니다.

주체 90, 9월 11일

반통일분자 이회창을 제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한 인사는 최근 이회창이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와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느니 뭐니하고 또다시 떠든데 대해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의 망언은 남북관계를 서로 다른 국가들간의 관계로 몰아붙이며 대결과 분열을 지속시키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남북간에는 협력과 교류가 활성화돼서 오해와 불신을 풀고 화해와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데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회창은 이를 퍼주기니 뭐니하며 갖은 비난을 일삼으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다. 이는 6.15공동선언실현을 방해하는 반통일적,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민족내부에 불화의 씨를 계속 뿌리며 통일을 반대하는 민족반역자 이회창은 전민족의 이름으로 처단돼야한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주민 최모씨는 이회창을 극악한 반북반공광신자로 낙인찍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북, 해외할 것없이 전민족이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자며 통일열기를 드높이고 있는때에 유독 이회창일당만이 이에 역행하며 경거망동하고 있다. 민족의 의사와 대세의 흐름을 거스르는 이런 반역의 무리들은 마땅히 청산돼야한다. 독립운동가들을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친일분자의 후예 이회창은 판사시절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국민앞에 사죄할 대신 오히려 큰소리치며 대통령을 해먹겠다고 지랄발광하고 있으니 정말 철면피하기 그지없다. 부시의 대북강경책과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협력해 나서고 있는 이회창이 대통령감투를 쓴다면 전쟁이 터지든지 무슨 변이 날 것은 틀림없다. 참말 위험한 인물이다. 이회창을 하루빨리 정계에서 몰아내고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이밖에도 절대다수 국민들은 민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병에 걸려 정쟁만을 일삼고 통일을 반대하는 이회창일당을 하루빨리 숙청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미당국이 내년부터 적용할 주한미군주

둔비용, 즉 방위비분담금을 올해 주한미군이 실제 사용한 4억 2천여만달러보다 5%가량 늘어난 4억 4천만달러기준으로 하자는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한미양국은 수차례의 고위급회담과 실무회담을 거친 결과 방위비분담금 약 5%인상에 대해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면서 오는 20일 열리는 제3차 한미고위급회담에서 최종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방위비분담협정 적용시한과 관련해 양국은 최소한 2년이상 적용하자는데 대해서는 잠정합의했으나 미국은 4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땅을 불법으로 강점하고 온갖 범죄행위만을 일삼고 있는 미제침략군에게 막대한 유지비까지 섬겨바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것입니다. 당국자들은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미군을 이땅에서 하루빨리 철수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교육위소속 야당의원들이 교육정책에 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4.9%가 공교육위기론에 공감하고 41.5%가 교육이민을 갈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노동사무소마다 밀린 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민원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눈앞에 다가온 추석은 고사하고 당장의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의 생활형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계 인권단체들은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일강화조약 50주년을 맞아 일본정부에 대해 전쟁범죄공식사과와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8월 28일 기니라디오방송이 미군의 이남강점과 관련한 글을 보도했습니다.

주체 90, 9월 12일

경찰이 대학내에서 한총련간부인 총학생회장을 검거해 학생들과 학교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오전 4시쯤 경찰 8명이 충북 청주 서원대에 들어가 총학생회장 김모씨를 연행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앞에서 공격용헬기도입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1인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이 단체는 4조원에 이르는 공격용헬기도입비용은 경제난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주름살만 깊게 할 뿐이라고 주장하며 도입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총장연임문제를 들러싸고 9개월동안 학내분규를 겪어왔던 숭실대교수 100여명이 10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각계에서 반통일분자 이회창을 제거하라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재야통일운동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모씨는 이회창이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통일론을 계속 떠들고 있는 것은 반통일분자로서의 그의 정체를 명백히 보여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누가 누구를 먹고 먹히우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수 없는 문제이다. 이건 지난 50여년간의 분단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6.15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이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바로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이회창은 기회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통일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의 망상이 아닐수 없다. 말하자면 북을 흡수통합하는 방법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말도 안되는 궤변이다. 북을 어째보겠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결국 이회창이 떠드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통일론이란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땅에서 전쟁의 불집을 터트리기 위한 전쟁론이다. 민족의 통일이 아니라 민족의 재난을 위해 혈안인 이회창을 절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이회창과 같은 전쟁미치광이는 지체없이 제거해야한다.≫

서울시와 대구시,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이번 국정감사를 실력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없는 아시아≫를 주제로 내건 제9회 반핵아시아포럼이 서울에서 10일부터 6일동안의 행사를 갖습니다.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타 쌍둥이 건물의 상층부에 현지시각으로 11일 오전 9시쯤 2대의 비행기가 충돌해 폭발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11일 이북을 방문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사장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53돌에 즈음해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와 그 산하 조직들,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재러조선공민중앙협회와 그 산하조직들, 재미동포 전국연합회와 그 산하 지역단체들, 재오스트레일리아동포전국연합회, 재독일동포협력회 회장, 재캐나다조선인연합회 회장 등 해외동포조직 및 동포들로부터 축전과 축하편지들을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53돌에 즈음해 시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레바논 대통령, 라오스 인민혁명당 위원장, 캄보디아 필승**당 위원장, 레바논 공산당 서기장이 각각 축전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외국방문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길로 함경북도 주둔 조선인민군 제696군부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이집트 신문 ≪알 아미랄 미시비≫ 지난 16일자가 게재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을 수록한 문헌집 ≪주체사상의 전진을 위하여≫를 멕시코노동당에서 출판해 당지도부성원들의 필독문헌으로 배포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53돌에 즈음해 공산당연맹 소련 공산당이사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러시아협회≫의 주최로 5일 모스크바에서 정식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53돌에 즈음해 3일 마다가스까르 노농투쟁당 전국위원장이 ≪21세기는 **김정일**각하의 존함과 더불어 빛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주체 90, 9월 13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9월 11일 조선인민군 제821군부대와 제368군부대, 조선인민군 제757군부대의 염소목장과 토끼목장을 시찰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각계 민중은 최근 일본반동들이 대형운반로켓의 발사실험을 진행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주체 90, 9월 14일

총장해임을 요구하며 10일부터 교수 100여명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숭실대총학생회가 12일부터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13일 민혁당 영남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해 이른바 반국가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진수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공격사건으로 부시의 외교정책과 위기관리능력전반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언론들은 이번 테러를 불러온 원인 가운데 하나는 국익만 우선시하는 부시의 일방적외교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시가 백악관으로 돌아온 것은 사건발생 10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 10시간동안 부시는 워싱턴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외곽 공군기지를 떠돌았습니다. 위기상황에서 수도를 비운 대통령이 미국민들의 눈에 곱게 비춰질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언론들은 더 나아가 부시의 외교정책전반을 도마위에 올렸습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9월 12일자 해설기사에서 부시의 국익우선주의와 일방적외교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사일방어체제강행과 같은 오만한 일부 정책은 국제적고립을 자초하고 테러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부시행정부의 일방적인 미사일기지정책은 반미의식을 고조시켜왔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부시에 대한 책임논의와 함께 자주의 시대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되게 되는 것과 관련해 13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13일 전중국 인민지원군 사천성 노전사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주년에 즈음해 치르끼스딴공산당위원장, 마다가스까르 사회주의진보당 전국위원장, 마다가스까르 투쟁연합당 서기장, 불가리아공산당 제1서기, 영국 혁명적공산당(마르크스-레닌주의) 대변인, 포르투칼 민주주의회의 전국지도위원회 위원장, 이집트 민족진보통일연합당 서기장, 민족콩고 진정한 루붐바주의수상, 민족운동전국위원장, 루마니아 근로당 서기장이 각각 축전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역사적인 러시아방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에 즈음해 러시아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연합토론회가 모스크바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체 90, 9월 15일

한민전 대변인은 일본이 대형운반로켓시험발사를 한 것과 관련해 14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이하생략)

반미운동단체의 한 인사는 친미사대주의자 이회창을 제거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회창은 친일분자일뿐 아니라 친미사대주의자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은 6.15남북공동선언을 반대하는 미국에 협력해 나서고 있다. 그는 미국의 부추김을 받아 6.15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하려는 목적밑에 남북간의 협력을 펴주기라고 비난하며 사회주의와 전쟁을 떠들고 있다. 이것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에 쐐기를 박는 민족반역행위, 친미사대행위이다. 이회창은 민족내부에 존재해서는 안될 친미사대주의자이다.
이회창은 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적극 지지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시험장으로 내맡기려 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을 짜고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미국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을 해먹으려는 이회창을 더이상 방치해둔다면 미국의 식민지지배를 끝장낼수도 통일도 할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예측할수 없는 큰 재난을 받을 것이다.
친미사대주의자 이회창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미국의 테러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전쟁으로 테러에 대응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상처를 치유하고 원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할 부시행정부가 새로운 무력보복의 악순환을 일으킬 전쟁을 공언하고 있는건 잘못된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전쟁을 통한 방법으로 미국시민들을 새로운 위험과 재난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며 부시행정부가 선택하는 전쟁은 다른 나라들의 연쇄적인 개입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국제적대립의 시대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해평균 600여명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사회민주당 김영대위원장은 일본이 대형운반로켓 ≪에이취-2에이≫발사시험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14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사장이 선물을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에 즈음해 가이아나 민족대표당지도자, 가이아나인민민주운동지도자, 가이아나***지도자, 방글라데시 공산당(마르크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서기장, 방글라데시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코스타리카 인민통일당, 인민자유당 서기장이 각각 축전을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에 즈음해 에티오피아 세계공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자국주재 이북대사관을 방문하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초상사진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초상사진에 꽃바구니를 증정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에 즈음해 우즈베끼스딴고통련산하 예술인들의 경축공연이 9일 따슈겐뜨주 또이쩨바시에서 있었습니다.

조선통일지지아시아지역위원회와 조선통일지지인도위원회가 미국이 이남을 강점한지 56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이북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지지하여 7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